EAST ASIAN LIBRARY NOV 25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illegible]
8th [illegible]
TORONTO, CANADA [illegible] 1A[illegibl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7 1982년 11월 2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November 2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인파대비 인준총회 장소변경

27일 하오3시 중앙한인교회

오는 27일의 3만교포를 대표하는 제18대 한인회장단의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장소및 시간이 변경됐다.

지난 10월27일 마감한 한인회장단후보 등록에는 장순채(회장후보)·이기훈(부회장후보)·변의섭(부회장후보)팀이 단독출마, 회장단인준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지난12일 한인회는 27일 하오2시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공고했으나 의외로 참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한인회관보다 장소가 넓은 중앙한인연합교회로장소를 옮기고 시간도 1시간 늦춰 하오3시로 확정했다.

22일 김문량선거관리위원장은 "인준을 기다리는 장씨측과 합의, 장소를 이같이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 한인회장선거에서도 강신봉, 강우석, 박인순씨등이 단독출마, 총회에서 무난히 인준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종전과는 달리 인준방식을 거수나 박수에서 탈피, 정식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키로 되어있어 인준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

장후보측은 가족, 친지등을 상대로 회비납부와 함께 총회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예년의 한인회 총회는 정족수 100명선을 채우기도 힘들었으나 이번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우선 한인회비를 납부한 유권자명단만도 21일 현재 852명을 넘었고 누구든지 한인회비 $10만 내면 총회참석과 함께 유권자자격이 주어지므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회장단선거는 한인회장단의 인준을 총회에서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칙 논쟁부터 장후보측의 개인문제에 관한 소문까지 교인사회에 나도는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선거파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출신인 이근우 승공문화협회회장은 이번총회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인준총회"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후보에게 반기를 들고있는 인사들은 장씨의 회장자격논쟁부터 일으켜 이번총회에서 반대표를 받아 장씨의 인준을 부결시키려는 운동을 펴고 있다.

장순채회장후보는 20일 "나를 반대한다면 정해진 기간내에 후보등록을 할것이지, 후보등록이 끝난 지금에 와서 무슨 수작이냐"고 항의했다.

◆한인회장 후보 장순채씨

한인회장 인준총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한인회장출마자에 대한 "무조건 인준방법"은 지양해야될 것 이라면서 현 회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드라도 이와같은 선거방식을 거치면 회장단에 경각심을 줄것이며, 차기회장단은 교민들을 의식하고 한인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1982년도 한인 추계남녀배구대회가 20일 배구협회 주최로 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웨스트·험버고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사진은 OB조의 결승전인 실업인협회팀과 청솔팀의 경기 장면. 이 경기에서 실협이 청솔을 2:0으로 물리쳤다.(관계기사 2면)

서강대학 학생 칼로 교수살해

(서울20일=연합)서강대학교 학생 1명이 캠퍼스에서 교수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19일 하오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전자공학과앞 복도에서 이학교 전자공학과 최진철군(25)이 전자공학과장 김명규교수(32)의 허리를 부엌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최군은 이날상오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와 하오1시께 종로3가 노점에서 2천원을 주고 부엌칼을 산뒤 숨겨 학교로 돌아와 복도로 걸어나오던 김교수를 찔렀다.

최군은 지난 80년11월27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신경쇠약증세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데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업을 받아왔다.

숨진 김교수는 서울대공대 전자공학과와 서울대대학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공학석사로 79년3월1일 전임강사로 부임한뒤 81년10월에는 조교수가 돼 82년3월1일부로 전자공학과장직을 맡아왔다.

박인순한인회장 모국방문후 귀임

박인순한인회장부부가 2주일간의 모국방문을 끝내고 14일 토론토에 돌아왔다.

전대통령 캐나다방문시 수고한 공이 인정되어 한국정부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한 박회장은 "3년만에 돌아본 한국의 발전상은 놀랄만 했으며 산업공단의 규모나 깨끗한 고적도시들은 감명깊었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전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이 캐나다방문시 토론토에 들르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말하자 "다음기회에 꼭 토론토를 들으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회장과 함께 방문한 캐나다교포는 오기송 한인총연합회회장, 주영호 노인회장, 송광석 오타와한인회장 부부이다.

광주 미문화원에 또 폭발물

특별수사반 편성, 피해는 없어

(광주22일=연합)광주 미문화원 [illegible] 사제 폭발물이 장치되었으나 경비원들에 의해 20일 밤 11시경 무사히 제거했다.

사제폭탄은 맥주병과 신문지로 만들어졌으며 광주경찰은 사건 직후 특별수사반을 편성했다.

이날밤 정상근무중이던 2명의 광주 미문화원 경비원들은 건물 지붕쪽에 폭발물이 장치됐다는 정보를 듣고 재빨리 폭발물을 제거, 피해를 막았다.

중공하키팀 주역은 한국인

골리·최씨는 외삼촌 찾는중

캐나다에서 친선경기를 마치고 지난 15일 몬트리얼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 중공 아이스하키팀(11월5일자 2면참조)에는 2명의 한국교포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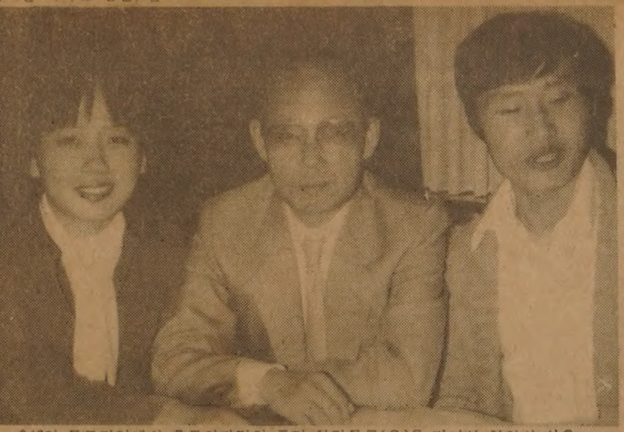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지난 80년 중공 하르빈에서 캐나다로 이민, 블로아에서 하르빈한약상사를 경영하는 한의사 서춘봉씨에 의해 밝혀졌다.

서씨가 22일 토론토 한국일보에 [illegible] 지난 1월 미국을 방문, 본지에도 크게 보도됐던(2월3일자 1면톱) 중공 아이스하키팀의 골리 최정문씨와 코치 이기만씨는 하르빈에서 이웃에 살던 한국교포라는 것. 최군은 서씨의 딸 서 정양(바이올리니스트)의 이웃 친구이기도 했다.

서씨는 "전화연락을 받고 지난 13일 몬트리얼로 찾아가 약 3년만에 최군을 만나보았다"면서 약 10만의 교포가 사는 하르빈시는 캐나다의 오타와와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 겨울이 길어 하키, 스케이팅등 동계스포츠가 활발하며 중공 하키선수가 대부분 이곳에서 배출된다고 말했다.

서씨에 의하면 지난1월 미국을 방문했을때 한국에 사는 외삼촌 박병진씨를 찾으려 애쓴 최씨는 아직 서신연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씨의 외삼촌 박씨는 해방후 부산에서 정미소를 경영했다고 한다.



◆13일 몬트리얼에서 중공하키팀의 골리 최정문군(우)을 만나본 한의사 서춘봉씨와 서정양(좌).

크리스마스전 파병요청

대대병력·방위장비까지

(워싱턴 19일=연합) 레바논정부는 한국정부에 크리스마스전까지 1개 대대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레바논정부가 1개대대 즉 6~800명의 한국군병력을 국제 평화유지군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으나 레바논이 원하는 주둔지나 주둔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

레바논정부는 또한 파병될 한국군이 지역적방위를 위한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진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장비를 갖출것도 아울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하 보석
반포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사 고

사진대회 시상식 4일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 입선작 전시회가 오는 4일(토)부터 11일까지 웨이사이드 화랑(Wayside Gallery: 918 5 Yonge St. 하이웨이 7 북쪽)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에는 사진협회가 지난 여름 캐나다 록키산맥에서 찍은 작품도 함께 전시되며 작품에 따라 판매도 합니다.

지난 10월2일의 사진촬영대회때 촬영한 작품의 시상식은 4일 하오 2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물론, 일반 교민제위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한인사진협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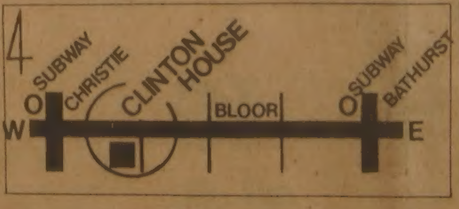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 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BLOOR
에서 만납시다!!
연말·연시크리스마스파티 예약접수중
CLINTON HOUSE
693 BLOOR ST.W.
535·9541
□150명 수용의 메인홀
□25명～50명 수용의 연예홀
□각종파티, 동창회
□각종모임, 계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토론토대·실협팀 우승

추계 남녀배구대회 20개팀 각축

82년도 한인추계남녀배구대회가 청소년조, OB조, 여성조등 3개조에 총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바구협회주최로 20일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웍스트·험버고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81년 추계대회와 82년 춘계대회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이번대회에서 대표조라고 할수있는 청소년조에서는 중앙한인A, 웨스톤, 7UP, 동부장로교회, 영락교회, K's, 워터루대학, 토론토대학, 임마누엘교회, 중앙한인B등 모두 10개팀이 참가, 1위에 토론토대학팀, 2위 워터루대학, 3위는 친목클럽팀인 7UP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청소년조의 결승전에서 토론토대학팀은 워터루대학팀을 1세트에서 15대13, 2세트에서 16대14의 근소한 차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춘계대회에서 청소년조의 우승팀이었던 중앙한인교회팀은 3, 4위전에서 7UP에 패배했다.

한편 에벤칭메교회, 실업인협회, 호남향우회, 청솔회, 서머나교회, 대한교회, 동부장로교회, 임마누엘교회등 8개팀이 참가한 OB(노장)조서는 실업인협회와 임마누엘교회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OB조 결승전에서 실업인협회팀은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단체인 코리언·타이거즈의 창설멤버가 주축이 된 청솔팀을 2:0으로 눌러 우승이 되었다. 춘계대회의 OB우승팀인 새한교회는 이번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또한 여자조에서는 학생만으로 구성된 연합교회팀과 30~40대의 가정주부들로만 구성된 임마누엘교회팀의 2개팀만 출전, 연합교회팀이 무난히 임마누엘팀을 눌러 이겼다.

당초 배구협회측은 여성조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여자, OB여자로 구분하여 각각 우승팀을 선정하려고 계획했으나 참가팀이 2개팀밖에 없어 부득이 1개조로 만들었다고 문영환회장이 설명했다.

또한 모범을 보인 개인에게 주는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상은 토론토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김성림군등 12명에게 돌아 갔으며 개인상수상자인 청솔팀의 김용준씨는 너무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문회장은 이번 추계대회에서 청소년팀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주니어들의 실력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브램톤스포츠사(대표 이건영) 주최로 배구협회후원하에 내년 2월초순경 주니어대항 배구대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구협회 임승철사무장은 이번 추계대회는 장소예약 문제로, 대회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신문공고를 냈다면서 83년도 춘계대회는 3월19일(토)에 열기로 웍스트·험버고교측과 이미 결정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날 각조별 개인상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조
김성림-토론토대학
Alex Kang-워터루대학
최왕균-7UP
함현숙-중앙한인교회

▲OB조
송광현-실업인협회
김용준-청솔
이강-임마누엘교회
변회수-대한교회

▲여자조
Chun Christie-연합교회
Helen Yu-연합교회
권주현-임마누엘교회
김수덕-임마누엘교회

한국 해외개발공사

토론토 현지고문 임명

한국해외개발공사(사장 김영일)는 11월1일자로 토론토의 교포 이인용씨(칠성인쇄사·럭키관광주식회사 경영)를 현지고문으로 임명했다.

한카청소년문화협회장으로 해마다 "우리말 잘하기 대회"를 열고 있는 이씨는 모국과 캐나다의 노동·이민관계당국 사이의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용씨

이씨의 고문으로서의 담당업무는 (1)인력시장 정보수집·홍보, (2)구인개발 접촉, (3)구인절차 대행, (4)진출그로자의 사후관리, (5)인력수출 관련업무등으로 알려졌다.

정기태사범 운동구점 인수

지난5년동안 511 영·스트릿 지하층에서 태권도도장을 경영해온 정기태사범(7단)이 최근 같은건물 1층의 C.K.T.스포츠사를 인수했다.

C.K.T.스포츠사는 현재 트레이닝복, 하키·축구등의 일부품목과 무술에 관한 책을 취급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모든 스포츠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교 민 동 정

◆나옥녀(한국관 주인)= 한국에서 일류요리사 유숙명씨를 이민 초청, 지난 17일 토론토에 도착해 한국관에서 일하고 있다.

유씨는 한국서의 10년간 요리사생활 경력을 살려 한국입맛에 맞게, 요리를 자신있게 해내겠다고 장담-, 오는 29일부터는 한국관 개업5주년 기념으로 짜장면및 몇가지 음식에 대해 특별세일을 한다고.

지성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4>

29분의 1 ⑲

金聖鍾 작

馬형사는 육감적으로 朴文子를 의심…

『출입하는 남자가 있다면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인이 물었다.

『우선 남자들만이야. 그 다음에 여자쪽으로 눈을 돌리도록하지.』

그래서 결국 한 집이 남았다. 세번째인 한기수의 집이었다.

『주인 남자를 못 만났다고 그랬지?』

『네, 부인만 만나고 돌아왔읍니다.』

『그럼 이 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 내일 한기수라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지.』

『네, 그럼 생각입니다만…』

마인은 말끝을 흐리면서 무엇인가 생각하는 눈치를 보였다. 김반장은 수사기록을 뒤적이면서 말했다.

『아마 만나 보나 마나일거야.』

『한 가지 조사해볼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뭔데?』

마인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껐다. 그리고 완방울 같은 눈을 한번 굴렸다.

『그 집 가정부 말인데 12월12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가정부는 12일 이전에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사전이 일어났다면 사전 직후에 가정부를 내보냈다는 말인가?』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래 그전 가정부에 대해 알아보았나?』

『아뇨. 주인 여자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일부러 피했읍니다. 마침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놓여있는 편지를 우연히 보았는데 한기수씨의 아들한테 온 편지였읍니다. 발신자의 이름을 보았더니 이육자란는 여자였읍니다.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그전 가정부가 아닐까 해서 주소를 적어 놓았읍니다. 아이하고 정이 들었다면 가정부가 편지를 보낼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음, 그럴챘군. 하지만 가정부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않아.』

『네, 그러니까 확인해봐야죠.』

『만일 가정부가 보낸 것이라면 그 가정부는 한씨네가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나갔을텐데 어떻게 주소를 알고 편지를 보냈지?』

『어떻게 해서 알게 됐겠지요.』

마인은 박문자에 대해서 느낀 자신의 육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육감이란 밖으로 드러내면 김이 새버리는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싶어진다.

그는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했다.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고 머리속은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 여자야말로 여자다운 육체를 지닌 여자라고 그는 생각했다. 육덩이는 가슴이 시야를 계속 어지럽히고 있었다. 술맛도 좋았다. 그녀를 감상하면서 마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그녀에게서 꺼림칙한 것이 느껴진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초리가 단순하지가 않았다. 표정 뒤에 무언가 비밀이 있는것 같았다. 왜 그여자는 나를 레옹 코냑을 몽째로 가져왔을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 천만에. 자만하지는 말자.

『마형사, 취한것 같은데?』

김반장이 눈을 반쯤 감고있는 그를 보고 말했다.

『네, 한잔했지요. 멋진 유부녀가 한잔 주길래 겁도 없이 받아 마셨지요.』

그는 히죽 웃었다.

朴男 그림

전문가에 듣는 부부싸움의 요령

"승부보다 협상에 주력하라"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부부란 거의 없다. 특히 남편과 부인이 둘 다 바쁜 일정에 시달리고 경제악화가 계속될 수록 사람들의 마음엔 여유가 줄어들고 싸움은 잦아진다.

적절히 이용하면 관계를 개선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부부싸움이란 대개 성격에 따라 고집형, 바가지형, 절어잡그기형, 복수형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싸움을 하되 파괴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및 가정문제 전문가인 엘렌·스타씨와 펠·스타씨 부부가 밝힌 부부싸움의 요령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싸움을 더 가까와 질 수 있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되는 기회로 삼아라.

◆싸울때는 싸움에만 전념하라. 출근길에, 혹은 급한 때, 또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싸우지를 말라.

◆요지를 분명히 하라.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등 돌려 대지 말라.

◆상대방의 감정, 한계점, 약점등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이 얘기를 상대방에게서 듣는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고려하라.

◆싸울때의 목소리, 억양, 얼굴 표정등도 신경을 쓰라.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이런 것들이 큰 화근이 된다.

◆다른 스트레스의 요인도 고려하라.

◆승부보다 협상에 주력하라.

◆둘이서 해결 안 될 경우 결혼상담역 같은 제3자를 내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라.

◆공격일변도여서는 안된다. 상대방에게 자산의 기분을 피력할 기회를 주어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대방 말의 내용과 기분을 풀을 수 있는 힘, 즉 듣는 훈련을 기르라.

쥐나고도 2등한 맹렬여성

도쿄 세계여자마라톤

지난 14일 도쿄서 열린 국제 여자마라톤대회에서 소련의 에레나·트후로선수는 왼쪽다리에 쥐가 나자, 허티(사진 좌)에서 빈침을 뽑아 넓적다리를 찔러 자극을 준 후(사진 우), 계속 뛰어 당당 2위로 골인, 화제가 되었다.

58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소련의 조야·이바노프선수가 2시간34분26초로 1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프랑스의 샨탈·랑그라스선수에게 돌아갔다. 캐나다의 캐시·리시카선수는 이 대회에서 10위에 머물었다.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 폭스 ● 세블 ● 라쿤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요정같은 모습으로 갈채를 모으는 발레리나

국립발레단의 캐런·케인

캐나다인으로 각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오·킹·센터에서 캐나다국립발레단(National Ballet of Canada)의 주연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프리마·발레리나 캐런·케인이 그중의 한명. 캐나다 극예술 권위 잡지인 「공연(Performance)」최근호에서 발췌한 캐런·케인과의 인터뷰기사를 전재한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자라나 국립발레단학교에서 수업을 쌓은 캐런·케인. 그녀는 올해 31세의 나이로 발레리나로서 절정의 시기를 맞고 있다. 발레리나로서 절정의 시기란 수련의 초년기, 자기 재능과 노력에의 회의기를 벗어나 각종 무대 경력을 거쳐 기량을 닦은 뒤(보통 발레계에서는 10년이 걸린다고 본다). 자유자재의 표현력을 갖춘 세련된 예술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케인양이 내셔널·발레에 입단한 것은 13년전인 69년도이다.

입단2년뒤인 71년도에 이미 그녀는 〈백조의 호수(Swan Lake)〉에서 백조여왕역을 맡음으로써 주연급 발레리나로 부상했고, 73년도에는 가장 까다롭고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역중의 하나인 〈잠자는 미녀(The Sleeping Beauty)〉의 오로라역을 맡게됐다.

이 역으로 그녀는 73년도 모스크바 국제발레 경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당시의 파트너는 내셔널·발레가 자랑하는 미남의 남성발레리나 프랭크·어거스틴이었다.

이때 이후 캐런·케인의 활약은 전세계로 펼치기 시작,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 발레리나 루돌프·누레예프등 세계 톱클라스 남성발레리나와 공연했다.

캐나다 국가훈장및 3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바 있는 그녀는,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 발레팬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1979년 가을 그녀가 발레를 그만둔다는 소문이 나돌았었지만 내면적으로 그녀는 발레에의 정열과 집념을 더욱 다져갔다. 그녀의 춤에는 생기와 발랄함이 더욱 가미됐고,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확고히 다졌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6백만불의 사나이"역의 헐리웃 배우 리·메이저와의 염문에 대해 "차라리 없었으면 싶은 일이었고, 언론이 너무도 왜곡보도하는데 대해 참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캐런·케인은 지난8일 개시된 내셔널·발레 금년 가을시즌에서 〈잠자는 미녀〉에 오로라공주로 출연하는 외에 19세기 러시아무용의 고전인 〈돈키호테〉에서 이발사 바실리오의 애인인 키트리역으로 출연한다.

"키트리역은 여자 발레리나로서는 드물게 점프가 많은 역으로써 어렵기는 하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말하는 캐런·케인은 그야말로 캐나다국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캐런·케인이 연습도중 상대역의 프랭크·어거스틴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앙상블이 잘되는 이 커플은 모스크바 발레경연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스페샬
Pre X-Mas
기간 : 11월20일부터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27 RANGEMORE RD.
TORONTO, ONT. M8Z 5H8
251-6578/9

Kodak
필름

C110-	12	1불90
	24	2불55
C126-	12	1불95
	24	2불65
C135-	12	1불95
	24	2불65
	36	3불40
C135-	24(400)	3불25
TV144-10		9불85
SX-70		9불65

바테리
Duracell

Size D	2불30
Size C	2불20
9볼트	2불
AA-AAA	1불85

주문에 신속배달

토론토아고스 그레이컵 진출
28일 익스비션에서 에드몬톤과대결

"내년에는 내년에는"하면서 아고스의 결승진출을 고대하던 토론토 시민들은 11년만에 뜻을 이루었다.

토론토·아고스는 21일 익스비션 스타디엄에서 43,432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열린 CFL(캐나다 풋볼리그) 동부조 결승에서 오타와·러프라이더를 44:7로 대파, 그레이컵(Grey-Cup: CFL 우승컵)쟁탈전에 진출했다.

지난 7월에 시작, 오는 28일 토론토 익스비션 스타디엄에서 개최되는 그레이컵 게임에는 동부조의 아고스팀과 서부조에서 위니펙·블루범버스를 24:21로 물리친 그레이컵 4연패의 에드몬턴·에스키모가 대결한다.

아고스는 지난 52년 우승이래 20년동안 단한번 그레이컵(71년)에 진출했었다. 작년까지 플레이오프(준결승, 준준결승) 진출도 못했던 아고스는 금년도 심기일번, 동부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21일 오타와와의 동부조 결승은 아고스의 쿼터백 홀로웨이와 와이드리시버 테리·그리어의 독무대였다.

홀로웨이는 30번의 패스를 시도해 20번 성공, 387야드를 얻었고, 이중 186야드는 홀로웨이·그리어를 연결하는 패스였다.

한편 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 에 에드몬톤서 거행된 서부조 결승에서는 에드몬턴이 고전끝에 위니펙을 24:21로 물리쳐 정상대결에 올랐다.

회계사 현영일씨 로고 현상금 $500

회계사 현영일씨의 국제경영상담회사가 회사상징 로고를 현상 모집하고 있다.

각 $500의 상금이 걸린 로고모집의 마감일은 11월30일로, 보낼곳은 58 Talwood Dr, Don Mills, M3O 2P5이 다.

런던 한인회 27일 경로잔치

(강상권지국장)런던한인회(회장 배동범)주최 경로잔치가 오는 27일(토) 오후5시 런던시내 바바리언 식당에서 개최된다.

경로잔치는 토론토 총영사관이 후원한다.

연락처는 (519)245-2003 배동범, (519)473-5517 이광범(총무).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NFL 속개 관중 외면속에

57일만의 파업을 끝내고 스타디엄에 돌아온 NFL(미국풋볼리그)은 관중들의 외면으로 곳곳에서 관중수가 떨어지는 실태였다.

필라델피아가 신시내티에게 18:14로 지는 게임을 관전한 한 필라델피아 팬은 "선수들은 스트라익 기간중 풋볼수입의 55%를 요구했으나 막상 경기는 5% 값어치 밖에 안됐다"고 혹평했다.

21일의 NFL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N.Y.Jets 37, Baltimore 0
Cincinnati 18, Philadelphia 14
N.Orleans 27, Kansas City 17
Atlanta 34, Los Angeles 17
Miami 9, Buffalo 7
Cleveland 10, New England 7
Dallas 14, Tampa Bay 9
Green Bay 26, Minnesota 7
Chicago 20, Detroit 17
Pittsburgh 24, Houston 10
San Fran. 31, St. Louis 20
Seattle 17, Denver 10
Wash'n 27 N.Y.Giants 17

◆아고스의 와이드 리시버 테리·그리어가 오타와 러프라이더 선수를 깔아 뭉개면서 볼을 낚아채고 있다.

겨울스포츠의 꽃 — 스키를 즐깁시다 ⑥

박경택(온타리오 스키협회회장)

3. 기술편
(1)활주
◉평지활주
스키를 신고 제일 먼저 보행부터 시작, 스키감각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자는 일반적으로 스키 신고 걸을려면 지상에서 길을 걸어 가듯이 발을 들면서 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고 좌우로 뒤뚱거린다.

평지활주는 스키를 스라이딩 즉 미끄럽게 밀면서 One Stop 즉, 한발 한발 전진을 좌우 교대로 밀면서 재속하는 동작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을 약15도정도 앞으로 내밀고 앞에 목표를 향하여 스키를 설면에서 떼지 말고 킥하면서 슬라이딩을 한다.

이때에 밀어낸 스키에 체중을 싣고 폴은 몸 가까운 지점에 찍으며 추진한다.

〈연습〉
1) 그자리에 선채로 스키를 좌우 교대로 미끄러지게 하여 감각을 익힌다.
2) 폴을 사용치 않고 스키를 미끄러뜨리며 걸어서 몸의 이동과 균형유지의 감각을 익힌다.
3) 폴을 사용하여 스키를 미끄러 뜨리며 걷는다.

〈주의사항〉
1) 스키를 설면에서 떼지 않도록하며 걸음폭을 크게 잡는다.
2) 발만 앞으로 내밀지 않고 몸중심(허리)을 옮겨서 뛰어 가듯 스키를 지쳐 나간다.
3) 폴은 몸옆에서 너무 떨어지게 하지 말고 스키와 가까운 곳에 찍는다.
4) 초보자는 폴을 앞쪽으로 찍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될 수 있는대로 앞발 위치쯤에 찍는다.

◉방향전환
초보자가 스키를 처음 신으면 무겁게 느낀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평지활주에서 스킹감각을 어느정도 잡게되면 평지에서 방향 바꾸는 연습을 한다.

방향 바꿈에는 크게 나누어 스탭턴과 킥턴의 두종류가 있다.

1) 스탭턴
스키의 선단 또는 후단을 벌려 한발한발을 옮겨놓으면서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2) 킥턴
양쪽폴을 몸옆에 찍고 한쪽스키에 반동을 주어 전방으로 차서 올린다음 크게돌려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다음에 다른 한쪽 스키를 돌려 나란히 놓으면 된다.

경사면에서는 항상 오른쪽 스키부터 움직여야 한다. 또 한가지 방법은 아래 스키를 윗스키의 위로 돌려 디딘 다음 윗스키를 돌려 옮긴 스키에 나란히 놓아 옮긴다.

◆평지활주의 스키보행연습.

◆방향전환의 스탭턴과 킥턴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저렴한 가격으로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1-385-1485
서부지점 ☎:243-9544

한국일보는 가장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맥주 1병 · 1불25전

ㅁ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대표 나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급구· 여자웨이츄레스와 주방헬퍼 구합니다.

한국일보

휘발유特消稅率 100%로

財務委小委 합의 現行 160%서 60%引下

LP가스는 10%부과 黑白TV수상기 5%

국회財務委 稅法심사小委(위원장金鍾仁의원)는 18일하오 휘발유및 代替油類에 1백60%의 특별소비세를 1백%로 내리고 LP가스에 10%의 特消稅를 부과하는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黑白TV수상기의 特消稅率을 10%에서 5%로인하키로 했다.

小委는 또 지금까지 외국인을 상대로한 관광호텔 음식점의 免稅조치가 관광요정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온것과는 衡平의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호텔 음식점에대해서도 10%附價稅를 적용키로했다.

그러나 附價稅는 民正黨이 課稅特例者의 범위를 음식숙박업자등 최종유통단계의 모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案을 지지한 반면 民韓黨은 특례적용대상자의 확대보다는 특례범위를 賣出額 年2천4백만원(정부案)에서 6천만원으로, 국민당은 4천8백만원으로, 議政同友會는 3천6백만원으로 각각 올릴것을 주장했다.

또 民正黨이 부가세의탄력세율을 그대로운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있는데대해 야당측은 이의철폐를주장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부가세는 추후에 일괄타결키로 미루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심의에착수했다.

한편 小委는 이날 崔明憲의원(民正)의 제의를 받아들여 「생산공장및 각급학교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食代에대한 부가세면제를 개정안에 추가삽입키로 했다.

"必要時"를 "非常사태"로 民正, 資源法수정안 週內마련

民正黨은 정부가 국회에제출한 資源관리법안을보완, 이번주말까지 修正案을 마련할 방침이다.

李鍾贊총무는 18일 『오는 22일이나 23일께 국회 國防委에서 이법안을 심의할수있도록 黨의 수정안을마련중』이라고 밝히고 『國防委의 구체적인 심의일정은 3黨간사가결정할것』이라고전했다.

그런데 李致浩의원등이 마련하고있는 이修正案은 정부안중 「필요시」로 되어있는 표현을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로 바꾸는등 문제條項을 보완하고 物資의 비축기간이 明示되어 있지않은점, 부안을 재산권의 침해가없도록 기간을 明示하는 한편 각조항에 포함되어있는 명령이나 조치내용도 구체적으로例示하도록 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이러한 내용의수정보완과 아울러 법안의 명칭도 「사람을 資源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위해 차라리 「非常對備法案」등으로 바꾸는 방안도검토하고 있으며 大統領令의委任조항도대폭줄일방침이다.

中蘇 政治對話계속 합의

黃華·그로미코, 모스크바會談 개최도

【모스크바=聯合】中·蘇두 共産大國은 모스크바에서 있은 최근의 양국 外相회담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향한 중대한 一步를 내디딘것으로 보인다.

黃華중공外相과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外相은 16일 모스크바에서 90분동안 회담, 관계정상화를 겨냥하여 지난달 시작된 정치적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하기로합의했다.

이 회담은 알렉세이·코시긴前소련수상과 周恩來 前중공수상이 1969년9월11일 北京공항에서 회담한이래 양국정부 사이에 열린 회담 가운데 최고위급이었다.

모스크바의 중공 소식통들은 그로미코外相과 黃華外相이 양국정부간 협상을 北京회담때와같은 수준으로 모스크바에서 재개한다는 앞서의 합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회담결과에 서로 만족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黃華의 모스크바방문은 크렘린당국을 크게 고무시켰고 따라서 그는 모스크바체류중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黃華의 브레즈네프장례식 참석을계기로 나타난 中·蘇 『화해무드』는 브레즈네프가 지난3월 관계개선을촉구하는 포문을연이래 최고조에 달한것이다.

일부에서는 유리·안드로포프공산당서기장이이끄는새蘇聯지도층이브레즈네프路線을 답습할것이라는 진단을내리고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각국외교관들은 안드로포프와 그의 동료 정치국원들이 中共측에서 관계개선의장애로 간주하고있는 요소들을 어느만큼 제거해야할 것인가하는 힘겨운결정을 곧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中共측이 주장하는 『장애요소』는 中·蘇국경과 蒙古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주둔 그리고 베트남軍의 캄보디아주둔에 대한 蘇聯의 지원등 4가지다.

外交官들은 모스크바측이 이 4가지중 일부에 대해 신축성을 보일 용의가 있음을 中共측에 은밀히 밝힌것으로 믿고있다.

在日同胞대표 19명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8일 하오 청와대에서 中華文씨(61·상업)등 지난 10월의 제63회 전국體典을 후원해준 在日동포대표 19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

金선수母親에 弔電

全斗煥대통령은 18일 하오 WBA라이트급선수권도전전중 끝내숨진 金得九선수의사망을애도하는 弔電을 金선수 어머니 梁善女씨에게보냈다.

全대통령은 이弔電에서『異域만리 他國에서 불굴의투지로 최후까지 선전감투하다 치명상을 입고 입원가료중끝내숨진金선수에대해金선수를 아낀 국내외의 모든 우리동포들과 더불어 깊은 애도와 함께심심한 弔意를 표한다』고 밝혔다.

金得九선수 끝내 絶命

腦死 99시간만에 어머니同意로 酸素호흡기제거

遺骸, 21일上午6시 金浦에

【라스베이가스=金首宗·李洪烈·連邦通信特派員】金得九선수(23)가 초인적인 투병속에서도 깨어나지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金선수가 입원중인 라스베이가스 데저트·스프링스병원의 주치의인 로니·해머그렌박사는 金선수가 의식을잃은지 99시간10분만인 18일상오10시55분(이하한국시간)공식기자회견을갖고 『金선수의어머니 梁善女씨(65)의 동의를얻어 그동안 부착했던산소흡기를 제거, 네바다州제8지방법원 돌·골드맨판사가 金선수의 법적사망을선고했다』고 밝혔다.

金선수의 어머니 梁씨는사망선고직후인 이날상오 11시20분 병원에서 『내아들의 또다른 영원한 삶을 위해 臟器를 기증하겠다』고 말하고 『그가애써준 모든 선생님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감사를 드린다』고 침착하게 덧붙였다.

이에앞서 산소호흡기를 달고라도 고국으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梁씨는이날상오4시께 梁正圭KBC회장, 趙南信주LA영사, 金賢治매니저와 만난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라니 무엇을더 바라겠느냐, 고향땅으로 편히 돌아가게해달라』면서 산소호흡기제거에 눈물로 동의했다.

이에따라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대학 臟器이식 전문팀이 18일 하오3시부터 3시간에걸쳐 콩팥 2개와 심장을 떼어내 臟器은행에 보관시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시킬 예정이다.

金선수의 유해는 19일 상오 2시 팜부초리장의사로옮겨져방부처리된후 입관되어 최종사망진단서가 발부된다.

20일상오5시 라스베이가스 한인교민회가 마련한 영결식이 끝나면 유해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져 20일하오3시 KAL016便으로 한국으로 운구된다.

金浦공항도착 예정시간은 21일상오6시20분. 유해는 공항에서 한국권투위원회장으로 장례식을 가진뒤 고향인 강원巨津으로 직행, 작년여름 자살을 기도할때 써놓았던유서에따라 고향뒷산에 묻히게된다.

한국型 警備艦 진수

海軍사상 최초… 國內기술진 建造

【釜山=申鉉鈺기자】우리해군사상 최초로 국내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한국형경비함東海艦(1천50톤)이 18일 상오10시 대한조선공사 부산조선소에서 高貴德해군 제1참모차장을 비롯한 해군장병과 南宮浩사장등 조선공사임직원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한가운데 진수식을 가졌다.

길이78·5m,폭9·8m의 날렵한 모습인 東海艦은이날 국방부장관부인 禹貞海여사가 진수도끼로 로프를끊자 경사진 선대(船臺)의레일을 타고 부산내항의 바닷물에 미끄러지듯 진수했다.

국민의 정성어린 방위세로 건조되어 이날 진수된 경비함은 연료소모율이 적은반면 우수한 기동력과 각종 함포의 전자식 작동으로 대함·대공·대잠작전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밖에 타국경비함에 비해 조선비용이 적게들고 장기간 해상경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수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한국형 경비함의 진수로 우리나라는 고속정과구축함 국산화에 이어 세계10번째 경비함건조국이 됐다.

東海艦의 제원은다음과같다.

▲배수톤수 1,050톤▲전장 78·465m▲폭 9·81m▲속력 31노트▲운항거리 4천해리

◇18일 대한조선공사 부산조선소에서 진수된 한국형 경비함의 모습.

林光土建(株) 1千萬원

(대표 林光洙외)

獨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18일접수>

◇林光洙씨

職場淨化推進委員長교육修了生 3백만원

大巡眞理會 10개 地區 1백만원

八角會회원일동 50만원

鍾路淨化推進協 34만원

東大門金銀商조합 28만원

▲林光土建(株) 대표이사 林光洙씨外 任職員및 사우디근무자一同=1천만원

▲職場淨化推進委員長教育修了生(대표 朴熙東) 一同=3백2만5천원

▲八角會(서울市出身幹部 親睦會)원 一同=50만원

▲鍾路區정화추진협의회장 임영현씨외 23명=34만원

▲東大門 금은상조합 박종하회장외회원一同=28만5천원

▲永登浦區·九老區목욕업회원一同=15만8천원

▲(株)三友電機職員一同=13만3천원

▲(종단)大巡眞理會 경기광명시 제7지구대표민복기씨外道人一同=12만1천원

▲(종단)大巡眞理會東大門區 장안동 제4지구 대표 김헌기씨外道人一同=11만1천원

▲(종단)大巡眞理會東大門區 중화동 제3지구대표임문호씨外道人一同=11만4천원

▲(종단)大巡眞理會江西區화곡동 제2지구 대표민병선씨外道人一同=10만8천5백원

▲(종단)大巡眞理會東大門區묵동제4지구 대표루점례씨外道人一同=10만3천원

▲(종단)大巡眞理會 관악구노량진제3지구대표 이희순씨外道人一同=10만5백원

▲(종단)大巡眞理會도봉구쌍문동 제1지구대표장영자씨外道人一同=9만1천5백원

▲(종단)大巡眞理會도봉구창동 제6지구대표한남순씨外道人一同=9만2천원

▲(종단)大巡眞理會경기도고양군신도면제4지구 대표윤태희씨外道人一同=9만5천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신정동 제4지구대표 최춘자씨外道人一同=8만3천5백원

▲東南亞文化友好協會주최 국제친선자선겨루기대회 노재철위원외 참가자一同=11만원

▲京畿道安城邑安城성결교회一同=10만3천1백원

▲韓國電球工業(株)=10만원

▲塔商社代表 金今洪씨=10만원

▲韓一제침공업사 대표=10만원

【仁川지사접수】

▲韓國電光(株)職員一同=10만원

▲在外韓國人 母國修學生會=10만91원

▲우신상사 고현길씨=10만원

▲(株)삼호사우디알하사 현장 기능직사원 박병옥씨=사우디貨3백리얄

▲대림산업사우디 Q·A·T·I·F지역기능공 최순기씨=사우디貨3백리얄

▲종로구 효제동73 金祐載씨=5만원

▲江東區길동 진흥아파트 1동75호 조선씨=2만원

▲충남 당진군순성면봉소리1구 부녀친목회일동=2만원 【順城지국접수】

▲麻浦區창전동 24통2반 주민一同=3만원

한국일보文化센터 겨울講座會員접수중

접수처 한국일보6층 744-5101~3 722-4161(交)

社会漫評

상책은……

레바논 多國籍軍에 日서 經費지원키로

맨스필드·櫻內합의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레바논주둔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평화유지군에 대한 경비분담 의료 의약 도로 협력 급수시설및 막사건립 경비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새내각이 출범하는대로 지원규모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7일하오 마이크·맨스필드駐日美대사로부터 평화유지군에대해 일본도 가능한한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받은뒤결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맨스필드대사는 이날 사쿠라찌(櫻內)일본외상을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일본외무성 소식통은 일본정부가 평화유지군에대한 지원을 일본이 중동의 평화유지에 공헌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金총리, 全南道순시

金相浹국무총리는 18일하오 全南道를 순시, 金琮鎬지사로부터 道政보고를 받았다.

金총리는 19일 麗川공단과 光陽제철소건설현장, 榮山江河口둑공사를 돌아볼 예정이다.

地平線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늘 印度뉴델리에서 開幕의 팡파르를 울린다. 〈에버·온워드〉가 大會의 구호다. 가맹하고 있는 34개 아시아각국의 모든 민족끼리 상호 이해를 깊게하고 친선을 두텁게하는 「끊임 없는 前進」을 하자는 祭典이다.

▼1951년제1회 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뉴델리에서 있었으므로 31년만에 발상지로 되돌아와 열리는 셈이다. 그간 이어온 前進의 역사를 아시아인들은 경기사상 「최대」라는 이번대회를통해 듬뿍 축하하게될것이다. 참가선수와 임원은 32개국에서 모두 5천2백명. 제1회대회때의 11개국, 4백89명에 비하여 격세의 느낌이 든다.

▼한때뉴델리대회는 流産될지도 모른다는풍문이 있었다. 하나 재집권한 간디首相이 印度국민을 「잠」에서 깨운다는 뜻으로 그개최를 받아들였다. 7만명을수용하는 메인스타디움 하나에 7억루피(약9천만달러)의 거금을 들였고 총계 47억루피를 관련시설에다 썼다. 그리고 경기장명칭을 간디首相 부친인 초대印度수상의 이름을따 「자와할랄·네루·스타디움」이라했다. 大會開幕일은 또한 간디首相의 65회 生日이라니 경사가 겹친 폭이다.

▼또 이미 알려진것 처럼 대회가 AGF(아시아 경기연맹)의 주관아래 열리는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AGF는 OCA(아시아 올림픽위원회)로 탈바꿈하게된 것이다. 그 창립총회에 참석한 AGF멤버로만 OCA는 발족한다. 인종·종교·지역·정치문제에서 초연해야 할 스포츠행사이지만 AGF는 그간 이스라엘축출문제로 늘 진통을 겪어왔다. OCA의 발족으로 이런문제는 이제 다 덮어 버리게될 것이다.

▼AGF창설제창자는 印度의 손디敎授다. 48년 런던올림픽참가후 韓國 日本 印度등 6개국 대표들이 손디교수의 제청에 호응, 「극동올림픽」과 「서아시아올림픽」을 통합, AGF구성에 나섰다. 그래서 AGF는 小아시아가 시작되는 다다넬즈 以東의 大아시아洲의 전지역을 안게되었다. 世界人口의 6할, 5大인종群중 4종, 그리고 세계적 大宗教 모두가 아시아文化圈에 들고있어 아시아경기는 세계올림픽의 절반이라할수가 있다.

▼우리는 86년 서울경기에 OCA의 모든 가맹국을 초청한다는 원칙을 세우고있다. 국교에 관계없이. 뉴델리에서 北韓선수들이 전례없이 「상냥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시아 모든민족의 새로운 前進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무슨 각성이라도 한것일까.

주간女性 구독신청 8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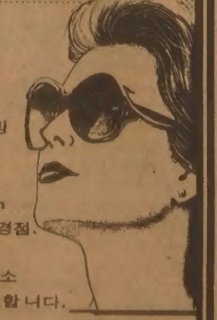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議長에 그로미코有力

蘇 幹部會議 체르넨코 예상 뒤엎어

後任外相 도브리닌…라이벌 除去說

【모스크바AP=聯合】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사망으로 공석중인 蘇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장직에 정치국원인 콘스탄틴·체르넨코가 오르리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역시 정치국원인 안드레이·그로미코외상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7일말했다.

관측통들은 지금까지 故브레즈네프의 측근인 체르넨코가 당서기장직을 비밀경찰(KGB)두목출신인 유리·안드로포프에 넘겨주는등 정치적타협으로 오는23일 실시될 선거에서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점쳐왔다.

관측통들은 또 그로미코의 외상후임에 黨中央위원회위원겸 駐美대사인 아나톨리·도브리닌이 임명될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소식통들은 그러나 그로미코가 최고회의간부회의장후보에 출마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일이 못되며 73세인 그가 지난4반세기동안 소련외교를 이끌어왔기때문에 간부회의장직에 올라 외국사절을 접견하는일을 맡는다면 그에게는 어울리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그로미코가 최고회의간부회의장직에 오를경우 안드로포프로서는 강력한 도전자인 체르넨코를 제거하는 잇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 안드로포프로 하여금 참신한 외교정책을 주도할수 있도록 외상에 자기사람을 기용할수 있게될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다.

86년을「세계平和의 해」로

【유엔本部AP=聯合】유엔총회는 16일 오는 8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정하기로 했다.

유엔총회는 국제평화의해가 유엔창립40주년이되는 오는85년10월24일에 선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이사회가 건의한 이 선언은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24개국이 발의하여 무투표로 채택된 결의문에 담겨있다.

美·蘇 雙務무역 增大키로

4년만에 열린經協회의서 合意

◇안드로포프 아들도 새主役 새 蘇聯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의 아들 이고르·유리에비치·안드로포프(가운데)가 19일 유럽안보회의 참석을위해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다른 2명의 蘇대표와 함께 마드리드의 회담장소에 들어서고있다. 【마드리드12일UPI電送=聯合】

【모스크바AP=聯合】미국과 소련의 기업인들은 17일 양국간 쌍무무역을 대폭 증대시키기로 합의했다.

2백9개 미국기업대표와 15개 소련국영기업대표들은 4년만에 처음으로 美·蘇무역경제협의회를 가진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양국간의 쌍무무역이 현재의 저조한수준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양국간의 무역증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대표들은 지난13일 소련에 가스관 장비를 제공한 西유럽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키로한 레이건 美대통령의 결정으로 지난3년간 침체상태에있는 미·소간무역에 보탬이될 것이라고말했다.

對蘇禁輸해제로 活力

돌上院의원 "蘇개편따라 通商에 새章"

로버트·돌미상원의원(共)은 레이건행정부가 소련의새 지도층에대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가운데 미·소무역경제협의회는 양국간 무역확대를위한 새로운 章을열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더·하트먼駐蘇미대사는 최종실무회의에서 행한 연설을통해 미·소간 무역거래는 외교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수없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경제및 외교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연관시킬 것이며 소련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軍人보험법 改正 生計同一者 우선

국무회의는 18일 군인보험법시행령 改正令을 의결, 군인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遺族을 정할경우 같은 순위자가 여러사람일때는 연령과 성별에따라 정하도록 돼있던 것을 사망한 보험가입자와 生計를함께 하고있던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엔 그를 우선순위로 할수있게 했다. 이 改正令은 또 지금까지 지정우체국에서만 지급하던 보험금 지급업무를 代行금융기관의 店舖에서도 취급하도록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돼있던것을 앞으로는 이를 면제할수 있게했다.

"外軍 年內에 철수를"

레바논 와잔首相 TV회견서 밝혀

【베이루트AP=聯合】미국은 레바논에 주둔해있는 외국군이 금년말까지는 모두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샤피크·와잔 레바논수상은 17일 밝혔다.

와잔수상은 이날 베이루트의 신문들에 전재된 레바논국영TV와의 회견에서 「나는 미국의 정책이 신속한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늦어도 금년말까지 외국군의 완전철수를 희망한다는 것을 레바논에 거듭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잔수상은 또 자신으로서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적절한 시기에 그들 병력을 레바논의 동부와 북부로부터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내년4월부터 自家운전 실시

정부는 공무원自家운전 실시시기를 당초의 내년1월1일에서 3개월 늦춰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관계자는 18일 自家운전 대상공무원 1천6백30명가운데 自家운전을 하고있는 6백57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게 結氷期에 自家운전토록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실시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의 언론인 2명 本社방문 製作과정살펴

◇외무부 초청으로 한국에온 남미콜롬비아의 두 언론인이 18일 한국일보社로 曺와飮편집국장㊉을 예방했다.

南美 콜롬비아의 라·리푸블리카紙편집국장 클라우디오·모데노씨와 엘·에스펙타토르紙편집국장 돌로로스·소토마이어씨가 18일 한국일보社를방문, 한국일보및 자매지제작과정을 둘러보고 曺와飮한국일보편집국장과 환담했다.

외무부초청으로 한국에온 이들은 『신문제작과정에서 정부와광고주 간섭을 받느냐』라고묻는등 언론자유문제에 관심을보였다.

社說

한 복서의 삶과 죽음

—「가난을 스승」삼은 金得九를 본다

『가난은 죄가아니라 진리』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고있다. 그「진리」란 무엇일까.

위대한史家 司馬遷의 말처럼 『貧賤하면 벗이 적다』는 것은 흔해빠진진리라고 할수있다.

위대한 마천루의 창조자 미국의 정신적 아버지의 하나였던 프랭클린도 비슷한 진리를 말하고있다. 『빈 부대가 똑바로 서기 어려운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떳떳이 정직하게 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어려운일」을 위해 23년동안 쉼없이 자기 몸에 매질을 해왔던 이땅의 한 젊은이를 알고있다.

『유달리 말이 적은』그가 전세들어있던 90만원의 세방에는 司馬遷의 말대로 『찾아오는 친구도 많지않았다』한다. 그 세방은 지금 10여개의 대형트로피만이 지키고있다. 그옆에 한줄의 글귀가 써붙여져 있다고 했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다』—그것은 2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金得九의 집념이었다. 그가 세계 타이틀의 꿈을 안고 김포공항을 나설때 예금통장에는 6백만원의 돈이 있었다한다.

가난은 분명히 金得九에게 신앙과도 같은 진리였던게 틀림없다.

강원도의 바닷가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던 소년 得九는 돈이 없어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에 가본적이 없고 운동화 한번 사신고 공을 차본 적도 없었다』고 했다.

열다섯에 「무작정 상경」했던 소년은 천신만고끝에 취직이 돼 「복싱과 독학」으로 「돈과 인간적 성장」의 길을 밟기로 작정했었다고 한다.

복싱을 해가면서 고입검정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무서운 집념을 짐작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하루를 참고 인내하면 열흘을 벌수있고, 사흘 참고 견디면 30일을, 30일을 견디면 3년을 벌수있다』고 그는 스스로 타일렀다는 것이다.

『검정 고무신에 새끼줄을 동여매고』운동장을 뛰었던 코흘리개 소년이 「세계정상」에 도전하기까지 그의 길은 한눈을 판 적이 없었다.

『최선을 다하여… 부와 명예를 얻자』—세계타이틀에의 꿈을 적어놓은 이 귀절은 위대한 순교자처럼 인류를 구제하려는 것도, 인간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경륜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해안의 가난뱅이 코흘리개에서 몸을 일으켜 글러브를 끼고 링위에 나선 한 젊은이의 순진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가난을 딛고 당대의 명필이 됐던 韓石峯의 얘기와도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절박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딧불과 하얀 눈빛으로 글공부를 했다는 그옛날 가난한 젊은이들의 집념보다도 더 억세고, 더 순진한 모습이다.

그는 韓石峯이 상상도 못했던 「한탕」이 판을 치고, 그때에는 꿈도 못꿨던 엄청난 이권과 거드름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하는 그런 시대의 청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속에서 오직 새벽에 일어나 뜀박질을 하고, 글러브를 끼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치고 받았을 뿐이다.

『링을 오를바에야 링위에서 죽겠다』던 金得九는 세상을 놀라게한 파이팅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위대한 순교자도,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그는 23년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한탕」과 거드름과 [illegible]이 판을 치는것 같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온 누리를 비출수있는 태양이 되리라』는 젊은이가 우리 옆에 있었다는 감동이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무하마드·알리가 스스로 외친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는 金得九에게 서슴없이 보낼 것이다.

언제나 죽음과 맞서는 자세로 자신과 대결하는 젊은이가 이땅에 있는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수 있기때문이다.

그가 운동선수건, 학생이건, 또는평범한 직업인이건 다를 건 없다.

우리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서슴없이 『위대하다』는 찬사를 보낼 것이다.

金得九라는 복서는 결국 죽어서도 우리곁에 영원히 남을것이다.

제2解氷期 올것인가

—빈번한 東·西首腦접촉과 美蘇관계

「유리·안드로포프」가 소련의 새로운 第1人者로 선임된지 이틀만에 美國의 레이건 大統領은 시베리아 天然가스管건설에 필요한 미국장비의 對蘇禁輸조치를 解除하였다. 또 요즘 열린 美·蘇무역經濟협의회에서는 雙務的交易을 대폭 확대키로 합의했다 한다. 소련 새 指導勢力에 대해 美國이 「和解」와 「平和」를 추구하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가스管장비禁輸解除는 물론 서방관련국들로부터 그동안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美·蘇관계의 전반적인 호전조짐이 좀체로 보이지 않았고 폴란드事態 또한 개선될 기미가 없어 레이건 大統領은 그요구에 계속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美國이 81년12월 공포한 8항목에 달하는 對蘇制裁조치중 한項目에 限해 해제를 한것이긴해도 그해금 결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은것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 西方同盟국들과 그동안 가스管부설문제로 생긴 「不便한관계」를 씻는데 이바지 하고 둘째, 소련의 姿勢에 수정이 가해지기를 바라면서 東·西긴장완화에 능동적으로 호응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면도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弔問使節로 모스크바를찾았던 美國부시副統領은 美·蘇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 「건설적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때 양국간 頂上會談도 실현될수 있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브레즈네프 장례식을 전후하여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東·西수뇌들간의 다각적인 접촉서도 冷却되고있는 東·西관계를 풀고 그改善을 위한 일련의 政策變化를 촉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시 美부통령은 안드로포프蘇聯공산당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對蘇 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밝히고 상호관계 타개에 確信을 갖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다. 또 그로미코 蘇聯외상과 黃華중공外相의 회담에서도 양국관계의 점진적 正常化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共同聲明이 밝히고있다.

그러나 弔問外交에서처럼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기대를건다해도 東·西간의 不協和音은 그리 쉽게 가셔지기 어려운 문제성을 안고있다.

東·西관계가 개선되려면 무엇보다도 소련의 팽창정책에 수정이 가해지고 군사적진출에 제동이 걸려야한다. 슐츠美國務장관은 소련에 대해 「軍費支出의 감축」에 먼저 합의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뿐아니라 對蘇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은 폴란드국내의 긴장완화, 아프간駐屯소련군의 철수,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軍철수, 소련내부의 인권문제개선, 美·蘇군축회담의 진전등을 바라고 있다.

즉 美國은 對蘇관계개선이 1차적으로 소련의 軍擴중지, 軍縮에대한 적극적인 호응에서 시작된다고 보는것이다. 이런 인식이 美國의 對蘇政策基調이며 「현실적인 노선」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슐츠國務長官은 강조하고있다.

안드로포프黨서기장은 美國과의 關係개선을 추진할 용의를 밝히면서도 아직 브레즈네프의 對外路線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公式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就任직후 소련의 증강된 戰力으로 世界平和를 유지할 수밖에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유사한 견해나 對美비판소리는 그밖에도 간헐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소련이 「브」時代의 對外路線을 그대로 추구할수있을 것인가 하는데는 의문이 앞선다. 그것은 「브」주도하의 군사적 확장정책과 소련의 「大國主義」노선이 對內的으로 감당키 어려운 부담을 가져오고 經濟상태가 위기를맞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이다. 對外的으로도 소련의 軍事的進出은 세계 도처에서 큰반발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소련의 새 지도세력이 택해야할정책은 「브」路線의 堅持보다는 건설적 變化를 추구하는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變化속에서 소련이 제2의 東·西間解氷을 모색해나간다면 그보다더 바람직스런 일은 없겠다. 지금 세계는 소련이 美國을 비롯한 여러나라들과의 긴장완화·관계개선문제에 어떤 응신을 보내는가에 관심을 쏟고있다.

記者의 눈

황새

甲川황새의 죽음을 크게 보도했다해서 적지않은 이의전화를 받았다.

『새한마리가 죽은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분히 냉소적인목소리들이었다. 아마도 舊政權때 人權과 새권을 비유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었다.

기자는 그전화들에대해 이렇게 정중한대답을 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황새가 왜 죽었는지를생각해야 합니다. 오염된 먹이를 먹고 죽었읍니다. 그 오염된것을 우리도 먹고있는게 아닙니까. 황새는 우리들대신해서 희생당한것임을 잊어선 안될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생태계파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이라는 생각들이 성장위주로 치달을때 환경오염문제는 항상 뒷전에 밀려나야 했었다. 그러나 몇년사이 安養川이 시커멓게 죽은 내가 되고, 한강이 썩어가며 아침저녁으로 먹는 수도물에서 혼탁한 냄새가 날때 오염의 심각성에 우리는 눈을 떴다.

급기야는 정부기구로 환경청이 생겼으나 아직은관심의 도는 충분하다고 볼수가 없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인간생활에 독과 실을 주는 이율배반성을 갖는 탓이다. 오염의 주범은 공장폐수이다. 공장폐수의 처리는 기업생산비와 직결되고 제품의 경제성의 높낮이를가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경제성장과 직결이 된다.

그래서 모처럼생긴 당국도 강경일변도로 가기가어렵고 천문학적인 예산을확보하기도 어려운 곤란한처지에 놓였다.

청둥오리가 떼죽음 당하고 황새가 횡사한 甲川을 보자. 그 상류에는 폐수를 쏟아내는 대규모공단이 자리하고, 생활하수를 방류하는 도시가 있었다.

취재 기자들의 눈에까지도 오염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비누거품이 떠흘러가고 물밑으로는 시커먼 앙금이 겹겹이 쌓여있다. 그곳은 벌써 「自然」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황새의 죽음이 甲川의 수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甲川의 수질오염은 환경오염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의 대비소홀의 결과이다.

자연은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그것이 온전할때 새도 살고 사람도 살며 생태계가 파괴되면 문명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우리는 한마리 새의 죽음에대해 감상에 젖어있는게 아니다. 그 새가 죽음으로 가르쳐준 교훈을 되씹어야한다. 땅과 강과 하늘이 맑아지도록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더이상 가만히 않아 방관한다면 삼천리강산은 모두가 甲川이 될것이며 급기야는 새가아닌 사람들다치게 할지도 모른다. 환경오염—그것은 21세기 인류최대의 난제의하나다. 【李鍾九기자】

內外動靜

▲全斗煥대통령은 18일 제27회 독립기념일을 맞은 모로코王國의 하산2세국왕과 제12회 국경일을 맞은 오만王國의 카부스국왕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

▲李載淳民正黨대표위원은 18일 특별기편으로 池鍾善(民正)·金德圭의원(民正)과함께 서해안최북단에 있는 白翎島를 시찰, 장병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

人事異動

韓國放送公社

▲편성1국장 辛九生 ▲제작1국장 印寬燮 ▲편성2국장 史相完 ▲제작2국장 金東鎬 ▲교육방송국장 邊衛夏 ▲국제방송국장 申東鎬 ▲방송운용국장 韋翰成 ▲국제협력국장 李憲 ▲방송연수원장 李東華 ▲종합기획실장 朴培植 ▲방송연수원연구실장 林應植 ▲광주방송국장 金鍾九 ▲대전방송국장 金學永 ▲춘천방송국장 尹一宇 ▲방송연수원 연구위원 裵學哲 ▲편성1국부국장겸운행1부장 安釣淳 ▲제작1국부국장 任剛鎬 ▲"부국장겸교양1부장 林炯斗 ▲제작2국부국장겸 교양2부장 趙大永 ▲"부국장겸 예능2부장 安平善 ▲라디오부국장 金英姬 ▲"부국장 金永璿 ▲"부국장 徐炳疇 ▲사회교육국부국장 梁珪植 ▲"부국장겸 사회교육2부장 李根培 ▲방송운용국부국장 羅亨洙 ▲"부국장겸프로그램관리실장 姜炳宇 ▲"부국장겸 영화부장 朴俊永 ▲아나운서실부국장 李圭恒 ▲"부국장 元鍾寬 ▲보도본부부국장겸정치부장 李清洙 ▲"사회부장 鄭鍾珍 ▲"부국장겸편집실장 李大燮 ▲방송심의실라디오심의부장 徐炳鉉 ▲"텔리비전심의부장 金燦洙 ▲홍보실홍보부장 金鎭基 ▲"시청자부장 鄭圭鳳 ▲편성1국 편성1부장 方元赫 ▲제작1국 예능1부장 李海旭 ▲"기획제작1부장 安國正 ▲편성2국 편성2부장 金秀雄 ▲"운행2부장 宋興植 ▲제작2국기획제작2부장 崔忠雄 ▲교육방송국편성운행부장 申俟澈 ▲"교육제작부장 孫一錫 ▲라디오국라디오편성부장서리 宣廷根 ▲"라디오운행부장 全仁圭 ▲"라디오1부장 朴仁彩 ▲"라디오2부장 鄭裕喜 ▲"FM부장 曺勝煥 ▲방송운용국개발기획부장 金秉浩 ▲제작지원국 효과부장 趙相來 ▲"지원부장 元喆載 ▲국제방송국해외방송부장 鄭亮 ▲"해외뉴스부장 崔南七 ▲국제협력국국제협력부장 張明根 ▲"섭외부장 崔長勳 ▲방송연수원연구실연구부장 李鍾勳 ▲보도본부경제부장 禹爽鎬 ▲"지방부장 金光一 ▲"체육1부장 金榮一 ▲"체육3부장 李明煥 ▲"보도기획부장 李正雄 ▲"경제특집부장서리 李相甲 ▲"해외특집부장 成大錫 ▲"보도관리부장 黃圭煥 ▲"편집실라디오편집담당부장 洪承國 ▲"편집실라디오제작담당부장 李炳大 ▲편집실뉴스파노라마담당부장서리 李在鉉 ▲"편집실뉴스80담당부장 金周喆 ▲"편집실보도본부24시담당부장 朴光春 ▲종합기획실부장 金成培 ▲기획관리실경영분석부장 林永大 ▲"서스팀관리실장 金鴻 ▲방송연수원연수부장 朴孝緖 ▲업무국업무부장 洪永男 ▲국제방송국방송위원 黃鳳九 ▲업무국강남출장소장 宋瀅根 ▲해설위원실해설위원 姜晃鐸 ▲보도본부방송위원 金基奭 ▲교향악단사무국장직무대리 崔忠植 (18日字)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政局往來

◆母國의 國力신장돼야 대우받아

全斗煥대통령은 18일 하오 靑瓦臺에서 올해전국體典을 후원해준 在日동포대표들과 환담하는 가운데 『在日동포 여러분들은 母國의 국력이신장돼야 여러분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母國의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라도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

全대통령은 또제5공화국 출범이후의 발전상을 소개한뒤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많은 고생끝에 이제모두 생활기반을 튼튼히 잡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단합하고 서로도와 기반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在日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올해 體典이 훌륭히 치러진데 대해 감사의뜻을 전하고 노고를치하.

◆밤을 새더라도 週末까지매듭을

民正黨은 국회豫決委의 部別심사가 금주로 끝나고 내주부터 예정대로 計數조정에 들어갈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기위해 『밤을새더라도 토요일(20일)까지는 재무위 稅法심의를 마무리하여 종결짓도록하라』고 긴급지시.

이같은 週末非常은 權翊鉉사무총장 陳懿鍾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등 3役이 18일상오 異例的인 긴급회의를 한끝에 결정, 朴泰俊재무위원장에게 시달되었는데 야당은 좀더시간을 갖고 精密심의하자는 느긋한 태도여서 아무래도 일요일까지 숨가쁜 협상을 하거나 자칫하면 내주초까지도 넘어갈 전망.

鄭在哲豫決위원장은 『앞으로 豫決委가 계속 順航할수있느냐의 關鍵은 財務委 稅法小委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으니 제발 내주부터는 計數조정에 들어갈수있게 歲入案의 결말을 내달라』고 호소.

◆학생의날 제정놓고 與野줄다리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하기위해 18일상오 열린 국회내무위 6人小委는 民正黨측의 「적극찬성론」과 民韓黨측의 「소극적愼重論」이 對立.

제안자인 民韓黨측의 柳晙相·柳寬鉉의원등은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날이, 스승을 위해 스승의 날이, 예비군을 위해 예비군의 날이 있는데 왜 학생의 날이 있어서는 안되는가』 『維新체제하서 폐지됐던 스승의 날도 제5공화국서 부활되지않았는가』라면서 제정의 當爲性을 역설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의 柳尙昊·孟殷在의원등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제정된다면 3·1절과 중복되지않는가』 『제안의 동기와 뜻은 이해가가나 현실적으로 日政때 국내외에서 광복투쟁을 벌여 기념할 날도 많으나 이를 3·1절로 기념하지 않는가』라며 신중론을 開陳.

한편 참고인자격으로 小委에 나온 金庸來총무처차관은 답변을통해 『총무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정부각부처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야한다』면서 贊反論에 언급을 留保.

조급한 豫決委 計數조정작업 野黨은 느긋한 자세

◆국회豫算增額案싸고 3黨各論

18일의 국회豫決委제1分委는 내년도에 국제의회연맹(IPU)총회준비경비를 비롯한 20억원의 국회사무처예산增額案을 놓고 3黨입장이 엇갈려 한때 論難.

발단은 民正黨측이 IPU총회비용 12억5천만원과 이에따른 지원의원外交비용, 韓·日외교지원경비, 의원회관자동전화기설치비등 7억7천만원을 增額해줄것을 야당에 요청한데서 비롯.

이에 民韓黨측은 『IPU가 예산편성이후 마련된 신규사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국민당측은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을 증액시킬수가 있느냐』며 강력히 반대.

벽에 부닺친 李漢東위원장은 李鍾贊총무의 지원을 받아 李東鎭국민당총무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民正黨은 20억원중 동전화기설치부분등을 제외한 「18억원의 증액 修正案」을, 民韓黨은 「조건부반대」, 국민당은 「무조건반대」의견을 붙여 전체회의에 넘겼다.

——공고——

제18대 한인회장단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

1. 임시총회 장소및 시간변경 공고

장소 : 중앙한인연합교회(서본×칼튼 353 Shebourne St.

시각 : 1982년11월27일 하오3시

2. 1982년도 한인회비 납부자명단 공고(11월21일 현재)

금년도 회장단인준을 위한 임시총회에는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만 참석 할 수 있읍니다.

회비는 총회직전까지 한인회나 총회현장에서 납부하실 수 있읍니다.

다음에 공고하는 명단에 의해서 회장단인준 투표용지가 배부 됩니다.

※명단에 누락되었거나 착오가 있으신분은 한인회로 연락바랍니다.

1982년 11월22일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 박 인 순

강신봉 강경자 강신용 강경태 강신학 강춘남 강영자 강찬영 강 령 강대길 강원신
강 진 강우석 강춘자 강달현 강선희 강공선 강인숙 강역성 강창숙 강태영 강태봉
강성오 강홍원 강학수 고순복 고정호 고광남 고영란 고종욱 고상현 고경순 곽창수
곽향렬 곽정렬 곽호중 곽호일 구상회 구진오 구본무 계정성 권장섭 김현모 Mrs.김정훈
김창렬 김정거 김학종 김영자 김정현 김용순 김시몬 김마리아 김운방 김연식 김종균
김혜숙 김신우 김영희 김선오 김윤배 김경희 김학성 김천순 김윤해 장재익 김병권
장영숙 Mrs.강신학 Mrs.강진 Mrs.강태영 Mrs.강홍원 Mrs.곽정렬 Mrs.곽호중 Mrs.곽호일
김상환 김선규 Mrs.구학혜 김영오 김송택 김인숙 Mrs.송대 김복록 김덕용 김영규
김경자 김이남 Mrs.이남 김진수 Mrs.진수 김정배 Mrs.정배 김인렬 김현숙 김연수

김영숙 김용섭 김성혜 김명정 김현애 김사만 김정순 김복순 김대현 김청자 김상표
김승원 김용대 김성금 김상린 김병연 김성근 김은성 김동훈 김영자 김도영 김상실
Mrs.구순란 Mrs.구문자 Mrs.계정성 Mrs.권심리 Mrs.김현모 김계남 김행자 김국범 김복선
김만진 김옥영 김태전 김영국 김대일 김애자 김동영 김여철 김종태 김숙자 김대천
김귀란 김귀준 Mrs.김선호 김춘락 Mrs.김윤해 김인철 김재정 김대역 김경숙 김정식
김정현 김종열 Miss종열 김부미자 김정식 Miss정식 김원필 김신년 김창범 김선봉
김기봉 김춘근 김신란 김경희 Miss경희 김종학 김성일 Mrs.성일 김석철 김해욱
김문일 김영희 김덕기 김영희 김대보 김지수 김정곤 김여숙 김진기 김초자 김동철
Mrs.동철 김성종 김인숙 김문언 김혜숙 김성로 Mrs.성로 김덕배 김정원 김의애
김규석 김계남 김재춘 Mrs.재춘 김홍랑 김시내 김광철 Mrs.광철 김소일 Mrs.소일
김기수 김순자 김종조 김영애 김병태 김조양 김종욱 김영갑 김정훈 김해석 김진현
김춘구 김정운 김순한 김창범 김선봉 Mrs.선봉 김춘근 Mrs.춘근 김경휘 Mrs.경휘
나덕현 나순기 남성우 남양자 남혜기 남동희 노도윤 노숙채 노은길 노귀자 독고원
독고숙 마상호 마숙희 명노길 명양순 문인식 문화자 문관식 문군자
문혜환 문남심 문가자 Mrs.가자 민옥자 Mrs.옥자 민영서 박 S. 박광철 박경희 박종국
박행자 박찬도 박로해 박대현 Mrs.대현 박승락 박춘자 박태식 박현숙 박희정 Mrs.희정
박용 박은자 박희민 박영자 박광익 Mrs.광익 박천호 박숙자 박태순 Mrs.태순 박두명
Mrs.두명 박대인 박영숙 박주상 박길자 박성교 박영구 박지언 이대한 이복희 이춘수
Mrs.춘수 인인용 이혜자 이용준 이명인 변완수 변종은 변광호 변재원 서만수 서경화
서형석 서은복 서동준 서봉화 서준경 서문자 서정순 Mrs.정순 서우정 석영자 성종윤
성영자 성용창 성수옥 성낙운 Mrs.김윤배 성앤나 성낙선 Mrs.낙선 성창근 성주연
송기선 송월순 송여수 Mrs.여수 송광현 송인길 송광보 송은미 송의섭 송수자 송광호
송경숙 송일근 송정자 송광선 송호영 송세주 송통열 신영식 신인수 신삼윤 신숙자
신덕현 선영옥 신성열 신현순 신종대 신기정 신용록 Mrs.용록 신익균 Mrs.익균
신우원 Mrs.김선규 신상만 신영자 심의팔 Mrs.의팔 심로택 심연희 안영기 안부자
안수통 Mrs.수통 안영신 Mrs.수통 안봉섭 안정식 Mrs.정식 안용구 Mrs.용구
안규정 Mrs.규정 양혜신 양해통 양주재 양선환 Mrs.선환 양정숙 양윤미 오용섭
Mrs.김인숙 오석영 오정숙 오기환 오호현 오칠수 Mrs.칠수 오춘상 오영주 오명균
배형도 배청자 배동호 배정자 배응진 백봉기 백운수 배경락 배승숙 배경자 백운산
Mrs.은산 배은법 Mrs.은법 변의섭 변광자 이창성 Mrs.창성 이희주 이용희 이형인
이형자 이병권 이덕순 이영현 이금영 이기천 Mrs.기천 이훈모 이칠영 이처관 이주환
이학현 이남숙 이우영 Mrs.우영 이양섭 이항련 이홍렬 이영희 이기항 이옥녀 이전영
이보현 이범재 Mrs.범재 이매래 Mrs.매래 이정범 이종훈 이정분 Mrs.정분 이세재
Mrs.세재 이현섭 이남순 이덕숭 이광숙 이동일 이영희 이헌구 이제욱 이수철 이영락
이명국 이정숙 이정복 Mrs.정복 이영대 이자경 이상림 이윤현 이영신 이정식 이정숙
이인덕 이은숙 이돈형 이길자 Mrs.김덕용 김영철 Mrs.김영철 김명준 김옥실 김영규

김현선 김구명 김인자 김웅일 김명순 김영철 김대국 Mrs.김대국 Mrs.김복순 Mrs.김선근
오금자 오행근 오영자 오풍길 Mrs.풍길 옥성민 옥윤숙 엄기욱 엄나열 엄동환 여경동
원재훈 원석단 원장호 Mrs.장호 원용섭 원영신 원옥란 유영진 유정자 유지원 유도로씨
유성현 Mrs.동환 유미자 유평봉 Mrs.평봉 윤여화 윤영숙 윤방현 윤정숙 윤회창 윤순희
윤병철 Mrs.병철 윤은상 Mrs.은상 윤혜숙 윤선일 Mrs.선일 윤 윤호영 윤은주
윤홍창 윤춘순 윤영수 윤혜자 윤호섭 윤영일 윤금자 이용선 이교상 Mrs.교상 이민복
이동환 김은성 이석현 김기춘 이동후 Mrs.동후 이 명 이태선 Mrs.태선 이창명 Mrs.창명
이 준 Mrs.성낙윤 이용준 Mrs.용준 이재은 Mrs.재은 Mrs.김춘락 이근우 이상은
이한구 Mrs.한구 이희용 Mrs.희용 이길자 MR.길자 이진갑 이금년 이 억 이명주 이주익
Mrs.기훈 이승열 이혜림 임용철 임정화 임명탁 임진수 Mrs.진수 임명탁 이길녀 Mrs.기훈
임정화 임용철 임진수 Mrs.진수 임태민 임문호 임미태 임T Mrs.T 임태민 Mrs.태민
임규식 Mrs.규식 장순채 장매석 장추신 장옥순 장영채 장순희 장기철 Mrs.기철 장윤복
장순애 장연탁 장재숙 장광복 장상혜 장추국 Mrs.추국 장기창 장병욱 장인철 장혜원
장동엽 장승택 장정자 장우덕 장영희 장한영 장현숙 장인수 장춘리 장영대 장석자
장 영 장필규 장정자 장재명 장시우 장재훈 장영숙 전태균 전경자 전윤식 전혜덕
전승운 Mrs.승운 전충림 Mrs.충림 전경우 전인숙 전우림 전금숙 전국섭 전용관 전정구
전향혜 정삼렬 정신온 Mrs.신온 정용태 Mrs.용태 정세원 Mrs.세원 정영구 정귀어
정정홍 정상은 정덕임 정명욱 정인필 정영희 정보경 정인기 정수임 정규영 Mrs.규영
정철기 정말련 정종섭 정영자 정필주 정은숙 정병하 정화욱 정병조 Mrs.병조 정창헌
정종희 정이록 정옥녀 정용주 정은건 조한철 조영희 조기연 조회단 조영호 조병역
Mrs.병역 조지섭 조경욱 조의문 조태선 조규연 조상희 조성준 조순욱 조봉섭 조숙자
조영희 조경희 조규혁 조혜미 조만휘 Mrs.만휘 Mrs.규현 조규현 조충원 조명자 조정운
Mrs.정운 조건동 Mrs.건동 주 송 Mrs.송 주성환 주재철 Mrs.성환 주영숙 주수식
주신윤 주창균 Mrs.창균 지명환 지영자 차선경 차경애 채영식 Mrs.영식 천운식 천남순
천명일 천경림 천용기 Mrs.용기 천중환 천재조 최상봉 최이홍 최복기 최용순 최회권
최국강 최봉식 Mrs.봉식 최기선 최명주 최규찬 최정렬 최태권 최순용 최재권 최성희
최영식 최송은 최영호 최윤화 최춘태 최행순 최광현 최경임 최사철 최회순 최남권
최전수 최인렬 Mrs.인렬 최병기 최애란 최춘재 Mrs.춘재 최종식 최정희 최동주 최헌숙
최언필 최화욱 함병섭 함명희 함필영 함선애 함태민 함영순 함기섭 함덕상 함욱재
함주호 Mrs.주호 함태산 Mrs.태산 함의현 함태은 함태호 Mrs.태호 허규갑 허만구
허봉순 현경애 현영일 Mrs.영일 하주용 하혜숙 한상희 한정자 한일환 한원정 한덕창
한복실 한명기 한옥순 한혜식 Mrs.혜식 한용준 Mrs.용준 홍철규 홍사희 홍사림 홍사겸
홍승해 홍혜숙 홍병선 Mrs.병선 홍종표 홍안삼 홍천덕 홍영애 홍승철 홍용문 홍동표
홍경자 홍기만 홍구자 홍명수 Mrs.명수 황순일 황혜전 황재필 황기영 황인주 황순자
황규식 Mrs.규식 송남성 Mrs.신귀자 Mrs.여경희 Mrs.원용섭 Mrs.윤 Mrs.이용환
Mrs.이석현 Mrs.이종후 Mrs.이 명 Mrs.이태선 Mrs.이 준 이종성

뼈아픈「廢墟」…再建몸부림

레바논의 풍성한 景氣는 언제…

각국의 探索발길 부산

한국、人力진출에 關心

建物25%·산업시설 75%나 잃어
인력20% 死亡·20萬숙련공 떠나

베이루트에 재건의 풍성한 경기가 일어날수 있을까. 폭풍우가 일시적으로 잠든 고요함은 아닌것인지. 사람들은 희망에 매달리고 있으면서도 불안으로 주저한다.

아민·제마옐대통령의 레바논이 다국적평화유지군을 애써 부르고 非레바논세력의 철수를 거듭호소하며 주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는 재건의 길을 걸어보겠다는 몸부림같다.

모두의 관심은 정치적안정을 전제로한 재건의 문제에 쏠리고 있다.

레바논재건계획은 아직 윤곽을 그리는 단계, 바야흐로 탐색과 경합의 발길이 부산스러워지고 있다.

레바논정부로부터 한국군 파견요청을 받았던 文昌華 사도 그부분에 촛점을둔다. 우리도 인력이 진출하고우수한 건설업체가 재건에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레바논 경제각료들도 한국을 함께일할수있는 대상의하나로 인식하고있다.

현지신문 알무스타크발紙가 13일자에 文대사의 그런말을 뒷받침했다.

한국대사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도 다시 문을열었다. 한국대사는 外相을 자주 방문하고 경제각료와 접촉하고 있다. 인력진출에 주력하는 모양이다.

이번 전쟁기간을 베이루트에서 보낸 KOTRA의 金과장은 최근에 한국상품의 7개총대리점을 점검해보았더니 대개 무역업무를 재개했더라고 전한다. 새한자동차대리점 마나 公社의경우 78년이후 수입한새한레코드 승용차1백25대중 재고가 2대만 남아 새로 1백대를 들여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베이루트에 선착하여 유일하게 상담을 펴고 있는 三星物産의 李희성과장은 레바논 상인들의 활발한 반응으로 지난 닷새사이에 85만달러에 달하는 직물수출계약실적을 올리고 있다.

레바논재건계획의 청사진을 담당한 기구는 개발재건대통령위원회(CDR)이다. 총리급의 무하메드·아탈라하위원장이 이끄는 이 기구는 지난4월까지 재건에 관한 최신보고서를 발행했으나 동란으로 백지화되어 새로운재건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흔히 인용되는 레바논재건비는 1백20억달러이다. 이 액수는 제마옐대통령이 아탈라하박사를 이끌고 지난10월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제시한 숫자다.

그러나 이는 사업계획에의한것이 아니고 파괴된 내용의 추정치 일부분이다.

77년만해도 아탈라하박사가 작성했던 5개년계획의소요경비는 44억달러였다.

당시 튀니스에서 열린 아랍정상회담은 매년 4억달러씩 5개년간 20억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첫해의 3억8천만달러를 끝으로 중단됐다.

베이루트 시가를 돌아보면 무력충돌과 휴전이 8년간되풀이되며 만들어 낸 폐허가 파편처럼 널리 흩어져있다.

전국에서 60만명이 피난을 강요당한 전화로 베이루트에서만 건물의 25%가 완파됐고 산업시설의 75%를 잃었다.

인력의 소모도 극심했다. 노동력의 6%가 전쟁으로 생명을 잃었고 20만의 숙련공이 레바논을 버렸다.

레바논은 주택건설통점의 공공부문재건비 1백20억달러중 내자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을 25%로 보고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산유국의 지원액은 50~60억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알려진바로는 레바논 자체의 金비축이 40억달러, 외환보유고가 13억달러로서 歐美의 금융기관도 레바논상환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레바논당국은 재외국민가운데 3천5백명이 각1백만달러이상씩 재건에 투자할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레바논의 복구에 관심을가진 20인대표단은 이미 11월초 베이루트를 다녀갔다. 미국정부주선으로 조직된 해외사설투자협회의 크레이그·넬란회장은 베이루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계약은 없었으나 많은 회원이 관심을가지고 상담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정도의 안정과 질서가 투자요건임을 전제했다.

프랑스도 미국에 뒤질세라 레바논재건의 주요한 재정지원자가될 심산이다.

미테랑프랑스대통령특사인 알랭·오트퍼르의원이 베이루트에 와서 프랑스의 재건계획참여방안을 협의했다.

영국의 존·레히외무차관보도 같은날 레바논정부와 협력관계를 협의했고 영국중동무역위원회(COMET)사무국장 실플레이어·론돈씨는 지난7일부터 13일까지 베이루트를 정찰했다.

이처럼 구미각국은 이미레바논재건계획참여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재개발처(USAID) 행정관 피터·맥퍼슨은 베이루트에 와서 1억7천만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는데 그세목은 구조사업비 4천4백만달러, 남부레바논구호비 1천만달러, 베이루트·아메리칸大學(AUB) 지원비 1천만달러, 주택및 하수처리복구비 1천만달러로 되어있다. 맥퍼슨은 베이루트의 하부구조가 기능을 발휘케한는데는 몇억달러수준의 지원으로 가능하나 파괴된 주택을 재건하려면 당장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UNICEF)은 바로 2천8백만달러를 약속하고있고 유럽공동체(EEC)도 1억달러를 지원하리라는 소식이다.

아탈라하박사는 솔직하게 레바논재건계획의 성공과 실패율을 50대50으로 내다보면서 『몇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적 관심이 레바논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샤피크·와잔수상이 지난달 출고로 구성한 10인내각은 비정치적 기술관료내각이다. 내무상을 겸한 수상자신(수니派회교도)이 베이루트 변호사출신이며, 부수상과 외상을 겸한 엘리에·살렘(그리스正敎徒)은 베이루트·아메리칸대학 문리과대학장 출신의 경영학자다. 피에르·쿠리 공공사업·교통·농업상(마론派기독교도)은 설계회사 사장출신, 이브라임·할라위 경제·관광상(시어派회교도)은 시어派회교도최고협의회 위원, 아델·하미예 財政相(드루즈派회교도)은 기술자출신이다.

그대부에 레바논閣僚를이곳에서는 「전문가 10인」이라고 부른다. 閣僚는 종교적 按配. 미국과 프랑스 교육배경 안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교육을 받은 각료는 외교, 사회, 노동, 석유, 재정을 담당하고 프랑스교육을 받은 각료는 법무,공보,국방,교육을 맡고 있다.

와잔수상은 지난9월 8개월간의 비상대권을 요청,단원제 의회에 의해 6개월비상대권을 승인받았다.

많은 투자가들은 제마옐대통령, 와잔수상, 살렘외상의 3頭체제가 팔랑헤당을 통제하고 非레바논세력, 특히 이스라엘을 레바논에서 철수시키는 협상에 성공할때가 「약속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베이루트18일=安炳璨특파원】

◇再起다짐「V字」 폐허속의 몸부림. 한 베이루트시민이 이스라엘침공으로 폐허가된 시가지위에서 재기를 다짐하며 V자를 그어보이고 있다. 【外誌】

메아리

滿船旗

金聖佑 <編輯委員>

慶北迎日郡九龍浦는 한때 꽁치잡이로 東海 제일의 漁港이었다.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 모양이라면 그 꼬리 끝 부분에 대롱대롱 매달린 인구 3만의 이 海邑은 지금은 오징어잡이 基地로 번창해 있다.

九龍浦에는 魚販場이 두군데다. 水協의 共販場외에 關販場이 하나 매일 선다.

새벽6시께 이 關販場 구경을 나갔더니 수백상자의 雜魚들을 쌓아놓고 침침한 전등불 밑에서 숨소리를 죽여 조용조용히 경매를 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경매는 금방 중단되고 모였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다. 방범대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다가와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이 關販場은 우리 沿岸어업에서 가장 두통거리가 되어있는 小型기선底引網의 선원들이 고기를 잡아다 委販하는 곳이다. 알밴고기나 稚魚를 마구잡아 魚族의 씨를 말린다고 당국이 금지시키고있기때문에 密漁를 해서 密賣를 한다. 九龍浦에 이 密漁船이 50척이상이라고 한다. 단속을 한다지만 쉽지않고있다. 이배들은 대개 小型老朽船이라 遠洋에 나갈수없고 이배의 선원들은 또 거의가 술주정뱅이거나 해서 大型船의 선원에서 도태된 나오자들이다.

漁港이라면 옛날에는 빠뜨릴수 없는 구경거리가 滿船式이었다. 고기를 가득 잡아 滿船이된 배는 入港을 하면서 기다란 靑紅의 滿船旗를 돛대에 높이 단다. 배위에서는 선원들이 징과 꽹과리를 치며 춤들을 춘다. 漁村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갯가로 우르르 몰려나와 물이 뱃전까지 찰랑이는 몸무거운 배를 歡呼로 맞는다. 1년에 몇번씩 이렇게 滿船의 배가 들어오는날은 온마을의 祝祭日이었다.

九龍浦에서 물으니 요즘은 이 滿船의 풍습이 없어졌다고 한다. 滿船旗를 가지고 다니는 어선은 한척도 없다. 배는 깃발을 잃었다.

까닭은 첫째 어선의 大型化 탓이다. 九龍浦에서는 79년께 꽁치의 凶漁가 계속되어 오징어잡이로 전환하면서 배들이 木船은 50톤이상, 鐵船은 1백톤급으로 커졌다. 먼 바다로 나가야 하기때문이다. 배가 커지니 연료와 식량을 많이 싣는다. 선원을 30명내지 35명씩 태우는 배들은 모두 TV가있고 냉장고에는 통돼지 한마리를 잡아서 넣고 나간다. 그래서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을수있다. 잦은 入·出港은 경비가 많이 들므로 큰배가 유리하다. 배들은 달이 밝은 음력 보름께는 오징어가 몰리지 않아 한달에 한번씩 이때만 입항을 한다. 한달 내내 오징어를 잡아 모았으니 배마다 대개 滿船이다. 하루 나가 滿船이 되어오던 옛날과는 滿船의 개념이 다르다. 게다가 요즘은 魚群探知機가 어느배나 실려 있어서 옛날처럼 한자리에 앉아서 고기떼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찾아다니니까 滿船이 더욱 쉽다. 滿船旗는 의미가 없어졌다. 한번 귀항할때 2천만원어치 이하를 잡아가지고는 경비가 안된다니 滿船의 규모를 짐작할수 있다.

滿船旗가 없어진 또 다른 이유는 선원들의 「健全」때문이다.

항구에 술집이 없기야할까마는 九龍浦에 술집이 많이 줄었다. 배가 들어오면 선원들은 곧장 집으로 간다. 遠洋化해서 가족을 오래만에 만나게되는 탓도 있지만, 갑혹 술을 마셔도 옛날처럼 흥청대던 풍습은 없어졌다. 전에야 고짓들이 들어오면 온 동네가 들썩거렸지만 지금은 魚販場만 왁자할뿐 거리는 조용하다.

선원들의 수준부터 달라졌다. 학력은 中卒이상이요 대학을 나온 사람, 公職에서 물러난 사람, 장사하다 실패한 사람들도 끼여있다. 선장은 옛날에는 경험많은 50대가 많았지만 어선이 기계화하면서 이제는 35세내지 45세로 젊어지고 高卒이상자다. 한해 한척이 2억5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릴때 선원의 月收는 50만원쯤된다. 중류의 생활을 할수있다. 선장은 월평균 1백만원을 번다. 자본가가 船主이던때가 지나가고있다. 九龍浦에서는 船主의 40%가량이 선장출신이다.

선원들의 흥청망청이 사라지면서 漁港은 祝祭를 잃었다. 滿船式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해마다 年初에 첫배를 띄우며 出漁式을 갖던 풍습도 없어졌다.

滿船旗가 없는 어선은 오늘의 우리 漁村像이다. 어선의 大型化에 落後하고 健全한 선원생활에서 이탈된 사람들만이 캄캄한 새벽에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關販場에 고깃배를 갖다댄다.

【九龍浦에서】

◇바퀴 셋뿐인 乘用車 이탈리아에서 製作, 市販되고 있는 三輪승용차。22마력 4人乘으로 1백㎞走行에 휘발유는 겨우2ℓ가 소모된다고。가격은 13만프랑。【키스톤=聯】

海外토픽

佛최고령운전 百歲할머니
73년동안 無事故 대기록도 세워

프랑스에서 운전하는 사람가운데 최고령자인 안·프로쇼·로베르·드·보상백작부인이 지난 1백세를 맞았다고.

1909년에 운전면허를 딴 보상백작부인은 그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아 『73년 무사고』의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최근 6개월동안 5천㎞나 달려 젊은이못지않은 부지런을떨기도.

자동차보험료가 1백30프랑(20달러)으로 내려갔다고 자랑인 보상할머니는 요즘도 매일 한번씩 드라이브를 즐긴다고. 【루르=AP】

★13세딸·前매니저송事도달
프레슬리 遺産싸움

세계적인 로큰롤 가수 故엘비스·프레슬리를 둘러싼 금전문제를 놓고 심각한 분쟁을 빚어왔던 프레슬리의 유산상속권자 리자·매리양(13·프레슬리의 딸)과 그의전매니저 톰·파커씨는 최근 법정싸움을 거치지않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멤피스·시미타르지가 16일 보도.

멤피스검인재판소의 조세프·에반즈판사는 이날 쌍방간의 구체적 합의내용이 알려지지않은 가운데 양측변호사들이 앞으로 3주이내에 합의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멤피스=AP】

佛 企業위한 對諜報장비展
007가방 훔친者에 물감뿌려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책이 극히 허술한 프랑스기업들을 위한 對諜報장비전시회가 17일 파리에서 개막, 기발한각종 對諜報장비가 전시되고 산업스파이들이 이용하는 전술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돼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전시회서는 제임즈·본드의 007식 첩보가방을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선을 보였는데 XY란는 암호명이 붙은 이 가방은 소유자의 손에서 떨어져나갈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돼있다. 이가방은 훔친 사람의 옷에 물감을 뿌리고 연기를 뿜어내며 주인의 필요에 따라선는 최루가스를 살포할수도 있다. 【파리=AP】

★美아스피린藥業界 투쟁
포장에 警告文붙가

미국의 아스피린생산제약업계는 아스피린이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수도 있다는 경고문안을 제품포장에 기입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의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제약업계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고있는 어린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인 아이컨월드박사는 그같은 경고는 충분치 못한 연구결과에서 나온것으로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진짜로 해를 끼칠수있다면서 정부가계획을취소하지않는다면 소송을제기하겠다고선언.

정부는 이미 공공캠페인을 통해 독감 또는 수두증을 앓는 어린이에게 아스피린을복용시키면 치명적이 될수도있는 라이에성 증후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아이컨월드박사는 부모들이 정부의 캠페인에따라 그들의 어린이에게 아스피린보다 안전치못한 다른 약을 복용시킴으로써 오히려 해를 입힐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UPI】

시크教徒의 품은칼 아시안게임 超非常

뉴델리市 길목 곳곳엔 萬여軍警 경비삼엄

수천명潛入 流血사태 우려

道路上 산발적示威→交通마비→게임방해工作

◇최근 뉴델리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시크교도들이 자치독립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발포, 이들을 해산시켰다.

19일 뉴델리에서 막을올리는 아시안게임은 말썽없이 치러질수있을것인가. 수천명의 시크교도들이 아시안게임을 방해하기위해 뉴델리에 잠입한것으로 알려진가운데 인도정부는 1만명의 군경을 동원, 삼엄한 경비를 펴고있다. 인도보안군은 시크교도들이 뉴델리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있는데 한검문소에서 8백자루의 칼을 실은 트럭1대를 발견한 사실은 유혈사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있다.

1천5백만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편잡州의 자치를 요구하고있는 인도시크敎의 과격파지도자들은 지난 6개월간 폭동을 유발, 44명이 죽고 2백여명이 부상하는등 유혈사태를 일으키면서 연방정부에 극렬하게 도전하고있다.

시크教의 강력한 아칼리黨지도자들은 지난4일 공식적으로 「聖戰」을 선포하고 아시안게임이 개막되기 하루전날인 18일저녁부터 「아칼리黨의 정당한 요구를 전세계에 호소하기위해」뉴델리로 진격, 아시안게임동안 매일 시위를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시크교도의 대변기구인 아칼리黨의 지도자인 프라카시·싱·바달은 시크교도들에게 평화적 시위에만 참가하되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무력사용을 금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16일발표했으나 이미 聖地인 암리트사르에 집결했던 수천명의 시크교도들은 권총,칼,창,도끼등으로 무장한채 뉴델리로 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크교도들은 아시안게임기간에 각종 주요도로상에서 산발적인 시위를벌여 교통을 마비, 아시안 게임을 쑥밭으로 만든다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다.

아칼리黨지도자들은 결코 당국의 체포에 저항하지않고 모든 감옥이 시크교도로 채워질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하고있으나 시크교도의 호전적인 성향으로 볼때 유혈사태가 발생할것으로 이곳 정부관리들은 예상하고 있다.

인사이드

시크敎는 5백년전 인도북서부의 비옥한 농업지대인 편잡州지방에서 구루두나에의해 창립된 힌두교·회교로부터 이탈된 개혁종교로 우상숭배와 카스트제도를 배척하고 평화를 삶의 원리로 삼고있다. 명성이 높은 시크교도들은 인도독립전쟁당시 독립군의 30%가 시크교도일 정도로 상당히 전투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수염을 길게 기르고 밝은 색의 터번을 두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군인같이 딱딱하다.

그것은 시크교도들이 지난수백년동안 모진 박해를 받아온 유산이다. 시크교도들은 17세기 보굴황제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힌두교도와 회교도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유혈충돌을 벌임으로써 시크교도는 하나의 전투집단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남의 지배를 받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시크교도들은 한때 편잡지방에 자치정권을 수립하기도 했었으나 19세기중엽 영국군과의 치열한 전투끝에 패배,

그러다가 지난6개월 전부터 자치독립주장은 적극화되고 지난달18일 성지암리트사르시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시크교청년들에게 정부보안군이 발포, 사망자가 생김으로써 사태는 걷잡을수없이 악화되었다. 인디라·간디정부는 4만여명의 시크교도들을 체포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기만하자 당황한 나머지 대부분을석방하는 유화조치를 취한바 있다.

인디라·간디수상은 아칼리黨지도자들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 시크교도들은 무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었다.

간디수상은 편잡州를 시크교도들에게 내어주고싶지만 그렇게될경우 갖가지 종족으로 구성된 여러다른 州도 앞다투어 독립을요구할것을 우려, 시크교도들의 요구를 거부하고있다.

독립성이 강한 시크교도들은 최근 인도뿐 아니라 캐나다의 터론토에서도 정치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터론토의 시크교도 지역에서도 지난14일 과격파에 의해 시위가 발생해 총격전까지 벌여 경찰 1명과 시크교도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현재 뉴델리에는 아시아 33개국에서 선수 5천여명과 관광객30만명이 모여들어 미니·올림픽의 막을 올리고있다.

아시안게임기간중 시크교도가 말썽을 부리게되면 인도정부의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만여명의 군인들은 시크교도에 대해 뉴델리여행을 금지시킨 가운데 뉴델리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검문소를 세우고 검문·검색을강화하고있다.

단도를 몸에 항상지니고 다니는 시크교도의 관습을 아는 외국선수들은 신변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선수들이 묵고있는 호텔이나 경기장에는 시크교도들이 시위를벌일경우 신속히 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시안게임개막식에는 34마리의 검은 코끼리가 행진하며 평화의상징인 2천마리의 흰 비둘기가 하늘을 난다. 그러나 뉴델리의 흰 비둘기와는 반대로 시크교도의 단도가 아시안게임의 축제분위기를 망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崔海雲기자】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E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새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의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두꺼비 (안의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욱거리
B536-1692
H245-3539

경남義昌에도 황새떼

周南저수지서 7마리 먹이찾아

【馬山】제주와 전남靈川에 이어 경남義昌郡東面周南저수지에서도 18일상오 황새 7마리가 먹이를 찾고있는것이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을 주민 김석명씨(45·대한염도연맹 義昌郡분회장)가 저수지에 몰려드는 각종 철새를 살피고 있던중 18일상오11시께 7마리의 황새가 날아와 수심이 얕은 저수지가에서 조심스럽게 먹이를찾으며 머물고있었다는 것.

18일하오 경남대 한규황교수는 현지답사에 나서 황새인지를 확인하고있다.

周南저수지는 지난74년 인근 昌寧郡梨房面松谷里 소벌저수지가 매립되자 철새들이 날아들기시작, 매년 겨울철이면 재두루미,고니,청둥오리등 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곳이다.【船】

甲川서… 17마리째 청둥오리 또 죽어

【大田】지난17일 황새 1마리가죽은채로 발견된 충남大德郡九則面甲川하류 新九橋위쪽 3백m지점의하천변 풀숲에서 숨진청둥오리 1마리가 18일상오9시께 또발견됐다.

이청둥오리는 죽은지 2~3일정도된것으로 보이는데 몸체가 까마귀등 다른조수류에의해 뜯어먹힌것처럼 뼈가 드러나있었고 주변에는 깃털이 어지럽게흩어져 있었다.

이로써 지난13일 갑천하류에 황새가 도래한이후 이곳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청둥오리는 모두 17마리로 늘어났다.【船】

황새 보호구역으로 忠南甲川지정 건의

【大德=姜秉泰기자】충남도는 18일 황새도래지인 충남大德郡九則面甲川일대를 황새보호구역으로 지정, 문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충남도는 감시원을 1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甲川주변에 웅덩이를파 오염되지않은 미꾸라지를 살게해 황새의 먹이로 하는등 황새보호긴급대책을 마련했다.

"황새죽음 충격적" 民韓黨성명

民韓黨은 18일 甲川황새의 죽음에 대해 성명을 발표,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지방의 하천까지 오염돼 조류도 살수없게됐다는 사실에 한층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徐淸源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국은 차제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전국하천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元豊모방 爭議관련 前노조간부 둘拘束

노동부서울冠岳지방사무소는 18일 한국교회노동자복지협의회사무국장方鏞錫씨(37·전원풍모방노조지부장)와 朴順姬씨(35·전원풍모방노조부지부장)등 2명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京釜高速道서 직행버스顚覆

추월하려다…승객 넷死亡

【釜山】18일상오6시30분께 경남蔚州郡三南面新華里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서울깃점 390.9㎞)에서 浦項을 떠나 부산쪽으로 달리던 한일여객소속 경북5아 3127호 직행버스(운전사 김준용·30)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의·높이 3m되는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져 차체가 대파되면서 승객 최천씨(45·부산東萊區巨堤3洞산74)등 4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김시호씨(26·경북月城郡安康邑楊月6里)등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경상자들은 蔚州郡彥陽성심병원과 慶州기독병원,부산 녹십자병원등에서 분산가료중이다.

사고가난 직행버스는 번호를 알수없는 앞서가던 차를 추월키위해 과속으로 추월선으로 들어서는순간 앞차도함께 추월선으로 진입하자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잘못꺾는 바람에 중앙선을 친범, 맞은편 길옆 언덕아래로 한바퀴 구르면서 굴러 떨어졌다.

사고버스는 바퀴가 하늘을 향한채 완전히 뒤집히며 논바닥에 처박혔는데 버스천장이 크게찌그러져 의자와거의 맞붙는바람에 이사이에낀 승객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사망자명단〉◇동래구 부산의료원=▲김기표(55·소장사·경남진주시)▲김기태(53·소장사·경북경주시)▲최청(45·부산東萊區巨堤3洞山74)▲60대 남자1명【船】

협성財團 특별監事

大邱市 教委 不法轉入學 3억5천만원

【大邱】大邱시교위는 18일 13개중·고교를 운영하고있는 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이사장 申鉉旭·59)이 수년동안 거액의 산하 각급학교교비를 재단으로 불법 전입시켜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진정에 따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은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13일부터 극비리에 감사에 착수, 이날현재 각학교에서 재단으로 불법전입된 교비는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사용처를추적, 조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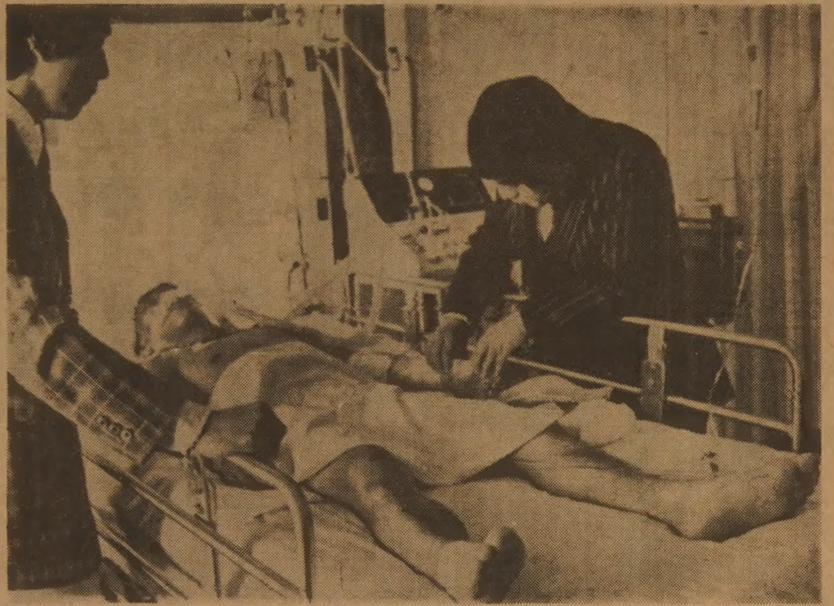
시교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교위승인없이 불법전입된 교비는 전액 소속학교로 환원시키고 공금횡령사실이 밝혀지면 관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키로했다.

한편 감사반은 각학교 경리장부등 회계부문외에도 인사문제·학교운영·재단운영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있는데 이사장측근자들이 재단관리실에 근무하면서도 산하학교의 교사로 적을두고 학교비에서 봉급을 수령케한 교사위장임용사실도 밝혀냈다.

협성교육재단은 지난 1955년 협성상고개교를 시작으로 지난 80년에 신설된 경일여고에 이르기까지 25년동안 중학 7개교, 고교6개교등 13개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학교법인으로 산하학교에는 7백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학생 2만9천5백여명이 재학중이다.【船】

라스베이가스市民들도 울었다

"臟器기증은 극진한 人間愛"



◇最善을 다했으나… 법적 사망선고 직전의 金得九선수。한의들이 18일상오 마지막 노력으로 金선수에게 침을 놓고있다。그러나 金선수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得九 생애 마지막은 가장 엄숙"

母親의 장한뜻 온 美國이 감동

【라스베이가스=金晉宗특파원】의학적으로는 사망상태라고 했지만 끈덕지게 생명을 지켜온 金得九선수의 생애 마지막 순간은 긴박하고도 엄숙했다.

18일 새벽1시께 在美한의사 李昌彬박사(64·사우드베일러大부총장)등 4명이 2차 한방치료에 들어가 30여분동안 침26대를 金선수의 사지에 꽂았으나 별 반응이 없자 이들은 『金선수가 漢醫學的으로도 죽은 상태』라고 밝히고 LA로 철수했다.

그뒤 어머니 梁씨는 슬픔을참고 金선수의 사망을 인정, 법적사망의 순간을 맞게 됐다.

이어 梁씨는 주치의의 최종브리핑을 들은뒤 상오8시40분께 臟器기증과 생명보조기 제거에대한 서류에 서명했다. 상오9시30분 文洪國목사(라스베이가스 중앙교회)가 찾아와 임종기도를올렸으며 상오10시50분께 폴·골드맨 지방판사가 병원으로와 5분뒤 사망을 선언했다.

상오11시20분 어머니 梁善女씨는金根龍씨, 梁正圭회장, 로니·해머그렌박사와 함께 趙南信영사의 통역으로 50여명의 내외기자와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臟器기증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최선을 다해준 의사선생님들과 염려해준 모든분들에게 감사를드린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때 해머그렌박사는 의사생활중 이처럼 감동적인순간은 처음이다. 인간본연의 모성애를 뛰어넘는 숭고한박애정신이다』고 코멘트했으며 梁正圭회장은 『金선수를 소생시키자는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최선을다해준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위금받고 흐느껴

네바다州 주민들의 격려에 깊은 감명을받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도중 애써 슬픔을참아오던梁善女씨는회견이끝난뒤 위스콘신州에 사는 레리·옴슨씨가 우편으로 보낸 2천달러의 조위금을 수표로 전달받으면서 『자식을죽이고 돈을받다니 무슨 괴변이냐』면서 끝내 울음을터뜨렸다.

주치의 해머그렌박사는 金선수의 높은뜻을 기리기위해 유품을 간직하고 싶다고 제의, 金賢治 매니저는 金선수가 입었던 팬티를주었다.

한편 金선수추모 모금운동에 들어간 라스베이가스한인회와 한인체육회는 장의사교섭등 장례절차를 전담하고 선세트스트리트공동묘지서 영결식을 마련할 예정인데 金선수의 관의 선두엔 金賢治매니저와 安炳植코치가 서며 나머지 5명은 라스베이가스청년회소속의 교민들이 들게된다. 또 한인회에서는 이스턴·파장의사내에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

美매스컴 취재경쟁

데저트 스프링스 병원주변에는 상오8시께부터 ABC·NBC·CBS TV와 AP·UPI등 각매스컴 보도진 80여명이 몰려와 경찰까지 동원돼 정리를맡았다.

특히 ABC방송은 이날하오 5시부터 金선수의 사망소식과함께 장기기증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 미국 전역에 金선수의 투지와함께장한 뜻이 전해지자 수많은 라스베이가스 시민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깊은 조의를 표하기도했다.

라스베이가스·선·지의 조지·스타시니기자는 『미국의 사고방식으로는 일단 의사의 사망진단을 내린후에도 끝까지매달린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는 인명존중사상을 이해하게됐다. 金선수의 투지와 정신력은 한국인들의 단결의식, 동양적인 윤리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장기기증으로 동·서양을조화한 생명경외사상을 보여줘 전미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말했다.

追慕 농구경기도

한편 金선수사망소식이 전해지자 라스베이가스무궁화여성회(주한미군부인친목단체)는 영결식에서 金의어머니 梁善女씨와 형根龍씨가입을 상복을 제공했다. 호텔종심의 도시에서 밤에일을하는 이회원들은 생업을 제쳐놓고 金의가족을 도와주기위해 나선것인데 라스베이가스에 있는 미도우라 레몬스 비크티어즈농구팀은 20일하오1시(현지시간)이곳 컨벤션센터에서 金得九추모겸 자선농구경기가 열린다고 발표하고 경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중 상당액을 金선수의가족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金得九 병상일지 (한국시간)

◆14일	▲상오7시45분 경기종료 들것에실려 링떠남。 ▲8시10분 데저트·스프링스 병원도착。 ▲9시 산소호흡기부착。 ▲9시5분 CT촬영。 ▲9시55분 수술들어감 ▲하오1시25분 수술끝
◆15일	▲상오3시 동공,피부자극 되살아남。 ▲7시 뇌응고혈액제거확인。 ▲11시 두뇌기능정지。
◆16일	▲상오2시 의학적 사망상태 선고
◆17일	▲상오10시40분 梁善女씨등병실도착。
◆18일	▲상오2시 한의사들 한방서도 사망선고。 ▲4시 梁善女씨 보조장치 제거동의。 ▲9시30분 라스베이가스 중앙교회 文洪國박사임종기도。 ▲10시55분 법적사망선고。 ▲11시20분 梁善女씨 臟器기증의사밝힘。

"제2의 得九없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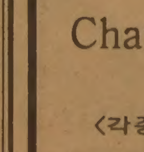
金선수의 사망소식을 듣고 徐順鍾(세기프로모션대표)는 『金得九는 훌륭한복서이자 성실한 젊은이었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이었다. 비록 결과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참으로 得九는 잘 싸웠다. 국외복싱팬들에게는 한국남아의 기백을 보여주었고 국내복싱인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일도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金奎喆씨(원진프로모션대표)는 『현지로 떠나기 닷새전에 세종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때 확고한 경기를 해 침체된 한국복싱을 일으키는데활력소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제2 제3의 得九가 생기지 않도록 선수 건강 관리에 더욱 만전을기할것이다』고 밝혔고 金炳基씨(복싱 해설가)는 『得九는 최선을 다해 싸웠고 후회없는 일전을 펼쳤다. 팬들도 그의 패배를 비난할수 없으리라 본다. 得九가 승리함으로써 국내 복싱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비록 패했지만得九는 한국복싱계에 정신력이 남아있다는것을 전세계에 과시해주었다. 그것은 위대한 공헌이다』라고 애도했다.

金光玟씨(OPBF前라이트급챔피언)는 『지난2월동양타이틀전서내가지고나서복수전을 펴기위해 열심히 연습해왔다. 이제 타킷을 맨시니에게 돌려야겠다』고말했다.

金得九뜻기려 誠金5백만원

和承그룹、本社에



和承그룹 회장 玄承勳씨(40·사진)는 18일 金得九선수의 뜻을기리는 사업에 써달라고 성금 5백만원을본사에 보내왔다.

본사는 이성금을 金선수의 어머니 梁善女씨(65)가 귀국하는대로 전해주기로 했다.

연탄가공 運搬船 惠民2、3號취항

연탄가공운반선인 惠民2호와 3호의 취항식이 18일하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와 金泰會 仁川시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仁川港제3부두에서열렸다.

섬에사는 주민들에게 연탄을 정부고시가격으로 제때에 공급해주기위한 惠民2、3호(적재톤수 각각 7백50톤)는 惠民商運주식회사(대표 朴泳桂)가 국민부자기금의 지원을받아 건조한것으로 惠民1호는 지난해 12월취항했다.

李여사는 이날관계인사들과 함께 테이프를 끊고 惠民2호 내부시설을 돌아본뒤부두가에서 연탄제조과정을 살펴봤다.

7大도시 汚染度 釜山이 가장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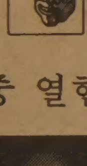
서울을 비롯한 전국7대도시가운데 대기가 가장심하게 오염된 도시는 釜山직할시이며 대기중 아황산가스함유도가 0.06PPM으로 환경기준치 0.05PPM을훨씬 초과하고있는것으로 16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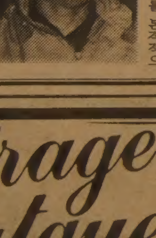
환경청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釜山의 경우 대기오염도가 지난80년 0.058PPM, 81년 0.061PPM, 82년 0.06PPM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81년까지 전국에서 대기오염도가 가장높았던 서울의 경우는 금년 평균0.056PPM으로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고있으나 대기오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로스께船長

20年경력 어획고 1위의 張達凡씨

滿船명수…1년중 열한달은 바다에





「滿船」-. 바다사나이들의 꿈이다. 출어때마다 돌아올때는 만선의 깃발을 올릴수 있기를 기원하며 파도를 헤친다. 이때문에 만선이 된 배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게 마련이다.

東草선적의 60톤급기선 저인망어선 제3한일호선장 張達凡씨(47·사진)는 동해안의 선주라면 누구나 탐을낸다. 그의배는 항상 만선의깃발이 휘날린다. 선장생활 20년동안 어획고 1위를빼앗겨본적이없어 선주들간엔 『로스께선장 잡아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

1m80㎝의 장대한키에 매부리코는 「로스께」(러시아인)란 별명이 그럴듯하다. 張씨는 눈을감고도 동해바다 깊은 속이 손바닥보듯 훤하다. 차라리 막내동이(6) 얼굴보다 더 낯이익다. 이러한 바다속을훤히뚫는 눈과 28년간 쌓은경험은 그에게 항상 만선을 보장한다.

그간 잡은 고기는 어림잡아 6만톤. 지난해에만 명태, 도루묵, 노가리등 2천3백톤을 잡아 2억3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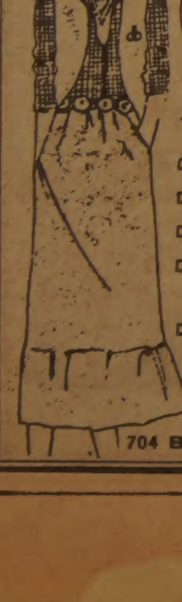
그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선주들간에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를 스카웃하면 돈을 번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수 밖에 없다. 張씨도 이때만은 인간적인 고민을 한다. 대개는 사정이 어려운 선주의 배를 타곤했지만 난처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지금은 누구나 탐내는 선장이 됐지만 張씨도 기선저인망어선의 선원이 되기위해 2년간 선장집을 찾아 다녔다. 19세때의 일. 2년만에 뜻을 이루고 釜山에서 처음 배를 탔고 27세때 선장자격을 얻었다.

선장이된후 아는 것만이 험한 파도속에서 살아남고 만선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 동해바다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쯤에 고기가 몰리는지….

『열심히 바다를 헤치고 고기를 잡아도 어부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것이 가슴아파요. 목숨을 걸고 어려운 일을 하니 그만큼 보람도 느껴야하지 않겠읍니까』

자신은 「滿船선장」이라 항상 보람에 차있지만 가족에겐 미안하단다. 1년중 11개월은 바다에서 매니 말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포용력을 배운 것으로 아픔을 대신한다는 그에게서 비린내가 나나 역겹지는않다.【東草=方政俊기자】



숙녀복 전당
Mirage Boutque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드레스 종류
□선물용 부라우스
□울세무 투피스(size 6,8,10)
□각종 자켙(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열

사격협회
총회소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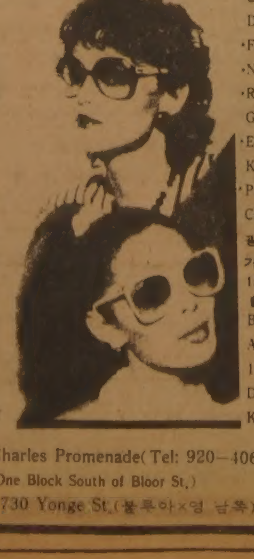
본 협회에서는 82년도 정기총회를 소집코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1월25일(목) 오후7시
장소 : 동궁

카나다한인 사격협회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아시안게임 오늘 開幕

한국、北韓앞서 8번째 入場

33국에서 4천5백명 참가

【뉴델리=신문공동취재반】 아시아인의 영원한 단결과 전진을 다짐하는 제9회「아시안게임」이 33개국 4천5백여 임원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19일 하오6시반(한국시간) 뉴델리 네루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정치와 종교이념을 초월, 아시아의모든 스포츠인이 한자리에 모여 힘과 기, 그리고 미를 겨루게될 이번대회는 19일하오개막식을갖고 20일부터 21개종목의 경기가 뉴델리와 자이푸르(조정) 봄베이(요트)에서 일제히 개막, 12월4일까지 16일간의 열기에 들어간다.

이날 개회식은 하오6시반 18개 트럼펫연주단의 웅장한 팡파르와함께 자일싱대통령이 오픈카로 입장하면서 막이 오른다.

33개국 4천5백여선수단이 고유의 의상을 입고 원색의 대열을 이루어 입장하는데 힌두어알파벳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제일먼저 입장하고 한국은 方新기수(농구코치)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북한·중공에 앞서 8번째로 입장한다.

자일·싱대통령이 개회를선언하면 우렁찬 팡파르와함께 대형 헬리콥터로부터 오색생화꽃가루가 뿌려지고 3발의 축포와 함께 2천마리의 비둘기와 5천개의 풍선이 하늘을 수놓는다.

이어 제1회대회 메인스타디움이었던 내셔널스타디움에서 간디수상에의해 점화되어 40명의 주자에의해 봉송된 성화가 최종주자 발비르·싱과 다이아나·히네스양에 의해 성화대에 점화되며 2백명의 합창단이 아시안 게임노래를 합창, 개막식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이날 개막식은 1시간30분만에 끝나고 4시간여의 식후공개행사가 펼쳐지는데 한국은 이번대회에서 금메달20개로 일본·중공에 이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있다.

뉴델리 25곳에컬러TV설치

상업광고출연선수 出戰금지

◆…아시아경기연맹(AGF)은 상업광고 출연등으로 아마자격시비가 벌어진 印度의 세계적인배드민턴 스타플레이어 프라카시·파두코네의 이번 아시안게임출전을 금지시키는한편 역시 아마추어자격 논란을빚고있는 인도네시아의 리엠·수에이킹과 베라와티·파즈린(여)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출전을 허가했다.

AGF집행위원회는 이날 2차심사회의에서 파두코네가 상업광고출연의에 계약선수등으로 아마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이같은결정을 내렸으며 인도네시아의 두선수에 대해서는 상업광고의 출연료를 선수본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배드민턴협회가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23일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대회출전을 허가했다.

뉴델리소식

기념주화5종 발행

◆…아시안 게임 기념주화가 17일 선을보였다.

기념주화는 1백루피(약8천원), 10루피, 2루피, 25페이즈(약20원), 10페이즈등5종, 이중 2루피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4종은 수집가용 프루프주화로 인도은행에서 판매되고있다. 2루피짜리는 일반주화와함께 유통된다.

◇각국대표 개막식 예행연습

개막식예행연습에서 참가국 기수들이 국기를 앞세우고 선수대표선서를 하고있다。왼쪽에서 4번째 태극기가 보인다。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그는 갔어도 그 闘志는 남아

得九를 말하는 金煥珍

좀더 따뜻한말 못한게 후회

악착같은 승부욕…목숨 잃어

타이틀따 靈前에 바치겠다

◇金得九선수와 가장친했던 金煥珍은『아직도 살아서 돌아올것만같다』며 오열했다。

『뇌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떠나기전 사생결단하겠다던 말이 떠오르더군요。그러나 목숨까지 잃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前WBA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 金煥珍(27)은 金得九의 사망소식을듣고 말을 맺지 못한채 눈물을흘렸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세계재도전 전초전을 앞두고 馬山 高麗호텔에 투숙해있는데 11월2일 새벽 1시반에 得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형, 날이 새면 떠납니다。챔피언 따올테니 형도 이번 게임에서 잘 싸워요」。나도「최선을 다해라。지더라도 멋있는 경기를 하면 팬들도 칭찬해 줄거다」고 말해줬지요。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읍니까。좀더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생전의 金得九는 金煥珍을 친형처럼 따랐다。金得九가 남기고간 일기장에는『俞有廷형수님은 역시 미인이다。金煥珍선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나도 기필코 대선수가되어 결혼식을 올려야지』(81년11월13일)등金煥珍을 복싱과 인생에서의선배로 생각하는 글들을 많이 남기고있다。

이들이 처음 만난것은 得九가 東亞체육관 문을 두드린 지난76년。金煥珍은「인상은 험악하지만 근성이있어 보이고 섭섭한 金得九」를따스하게 보살폈다。78년부터는 冠岳區舍堂洞집에서 같이 기거하다시피했다。

형제처럼 친했지만 得九는 승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둘은 자주 스파링을가졌다。남들이보면 싸우는것이 아닐까할정도로격렬한스파링이었다。得九는바둑·장기·탁구등에서 金煥珍보다 한수아래였다。得九는『키는 형보다 내가 더크다』며 몰래 탁구장을찾아 연습얼마후 金煥珍을 압도했다。

로드웍을 함께할때도 得九는 악착같은 승부욕을 드러냈다。金煥珍이 빨리뛰면『형 천천히 가요』라고 말하다가 골인지점 얼마전에 총알처럼 달아나『봐, 형 내가 이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승부욕이 得九를죽음으로 몰고간것같다고 金煥珍은 울먹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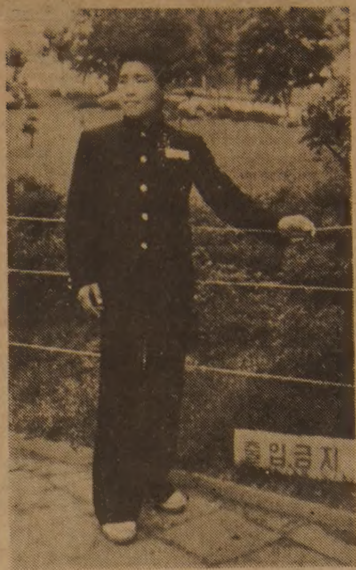
金煥珍이 得九의 모습을마지막 본것은 美國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得九가 연습하는 훈련캠프로 갔더니『형이 페드로·플로레스를 물리치고 세계챔피언이 되리라고 누가 예측했읍니까。두고보세요。깜짝 놀라게 한번 멋지게 해치울겁니다』고 투지만만했었다。

金煥珍은 得九의 뇌수술소식을 듣고 집(서울 江南區 盤浦洞 보라아파트109동 301호)을 나와 새벽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한다。

『춥고·배고프다가 살만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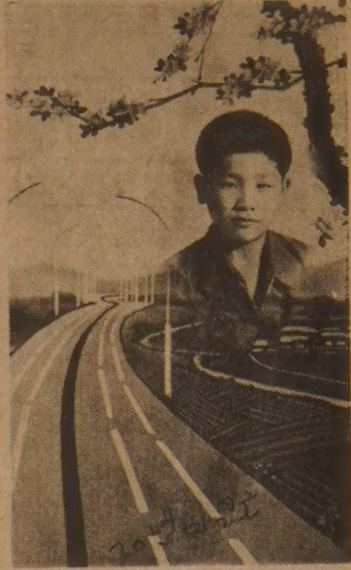
내년 1월9일 日本 東京에서 도까시끼에 도전할 예정인 金煥珍은 타이틀벨트를 되찾아 得九의영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金仁奎기자】

춥고 배고프다가 이젠 살만했는데…



◇고교생 교복도 입고

77년3월 서울시 신인 아마복싱 선수권대회 우승이 인연이되어 서울千戶商専에 스카웃,진학의 꿈을 실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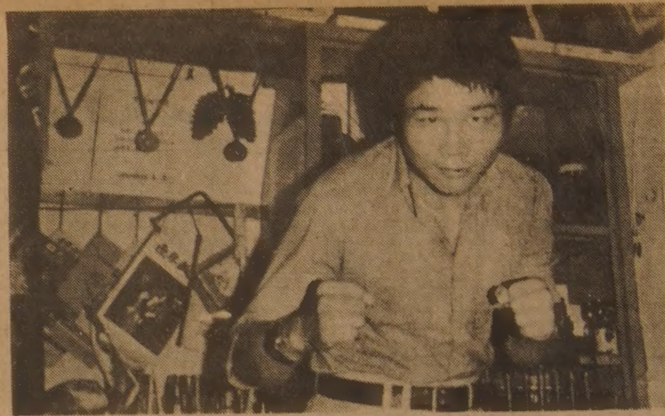


◇巨津국교때의 金선수

巨津국민학교에 다닐때의 金得九。이때 벌써 그는 보다 넓은곳에서 활동하고싶어했다。

◇東洋챔피언돼 금의환향

올해 2월 동양 라이트급 챔피언이된 金은 고향 高城군청에서 환영의 인파에 묻혔다。그는 늘『전쟁과 복싱에는 2위가 없다』고 말했다。



◇美國으로 가기전의결의

美國으로 떠나기직전의 모습。친정 飛龍체육관 [illegible]관장을 찾아 결의에찬 표정을 보여주고있다。

KBC葬준비

짧았으나 불꽃과같은 박력의 인생이었다。한국혼의 상징金得九는 끝내 숨을거두고 말았다。몸은 갔어도 그가 이역 라스베이가스의 링위에 뿌린 불굴의 정신은 영원히 후배권투선수들을 지켜줄 것이다。

각계에서 金得九의 정신을 살리고、그의 유족을 돕기위한 운동이 일어나고있다。한국권투위원회(KBC)는 KBC葬을 준비하고있다。

金선수 본명은 李德九

친형 李鍾鎬씨 털어놔

『세계 챔피언이되면 잃어버린 이름을 찾겠다고 하더니만…』

金得九선수의 친형 李鍾鎬씨(33·전북이리시 중앙동1가16의6)와 누나 金貞子여인(36·강원도 고성군간성면 광산2리)은 동생이 숨을거두었다는 소식을듣고 대성통곡했다。

친형 李씨에의하면 金선수의 본명은 李德九。전북옥구군 옥산면 당봉리가 고향인 金선수는 두살때 아버지 李鍾鎬씨를 여의고 어머니(梁善女씨) 등에업혀 집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金鎭烈씨(고성군거진읍)에 개가하면서 이름을 金得九로바꾸고 金씨의 4남으로입적했다고한다。

李鍾鎬씨는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향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아원서 성장했으며72년 수소문끝에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내 金선수가 자신의 핏줄임을 알게되었다고 지난날의 기구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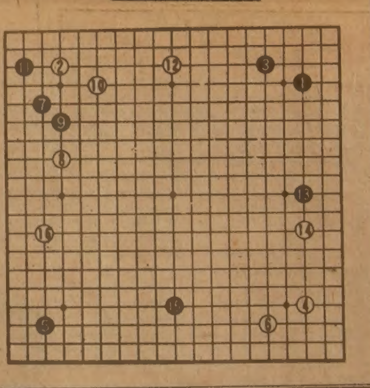
李씨는『동생이 저세상에서라도 잃어버렸던 이름을찾고 세계챔피언의 꿈을 성취했으면 좋겠다』고 울먹이고 본명을 밝힌데대해 다른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1譜 1~16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姜 勳 <1勝>
黑(4段) 李相澈 <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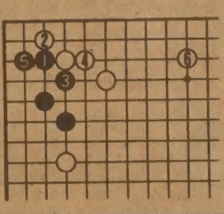


제4국은 원래 徐奉洙7단과 두게되어 있었는데 당시 徐7단은 棋王戰도전국을 계속 두고있었고 겸하여 國手戰과 最高位戰에서 도전권을 판가름하는 결승국을 두어야해서 부득이 다음판으로 미루고 이 바둑을 앞질러 두어야했다。따라서 李4단이 前局에 이어 거듭 등장하게된 것이다。

그리고 張秀英6단이 마침 最高位戰에서 도전자가 되어 지금 5번기 첫국을 끝내고 있어서 앞으로도 名人戰본선리그 대진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것같지만 곧 원상 복귀하게 되겠으므로 전체진행에는 하자가없으리라고 믿는다。

黑1、3으로 우상귀를 먼저 굳힌 것은 예비정석으로 요즘에는 보기드물다。더구나 黑5로 3三을 차지한 것도 이색적。趙南哲8단은『재미있는 형이 출현했다』고 한다。

물의 흐름처럼



白도 6에굳혀 黑7을 허용하여 11까지 역시 예정석이 재연되었다。黑11로 白12를 종용하고 13에 선착한 수순이 타당하다는 평인데 11로는 참고도의 정석도 성립되는 곳이지만 그선악가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白16까지 물의 흐름같은 진행이다。【一人】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1

안개속의 집 ⑱

『그 여자가 가겠대요。저더러 사모님께 잘 부탁드려달라고 하면서요』

얼마만인지 식모애가 수지의 귓전에다 대고 속삭였다。그 동안에 오목이하고 많이 친해진 모양이었다。어쩌면 오목이를 상대로 세도까지 부렸음직했다。우월감때문에 식모애의 오목이에 대한 경멸이 한결 누그러진 것 같았다。

『안돼。그 여자를 붙잡아야해』

수지가 가냘프게 애원했다。수지는 그때까지도 코트도 안벗은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왜요、사모님』

『그 여자를 놓치면 안돼』

『또 온댔어요。남편을 중동 보낼때까지 귀찮게 드나들겠다고 제법 엄포를 다 놓던걸요』

『그 여자를 붙잡아야해。삼계탕을 먹여야 하니까。거진 다 됐겠지?』

『사모님도 그 좋은 인삼을 그렇게 많이 넣고 곤것을 정말 그 여편네한테 먹이시려나봐』

『정말이고 말고』

수지는 갑자기 생기가 나서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좀전의 그들의 곤경을 닭이 구했듯이 지금 수지를 망연자실에서 구한것역시 삼계탕이었다。

『그 여자가 아무려면 그걸 먹으려고 하겠어요。제딴엔 그래도 그게 와이로라고 가져왔을텐데』

『다 됐으면 나하고 겸상을 해서 안방으로 갖다 주렴』

수지는 달려와 벼랑끝에서선 것처럼 헐떡이며 말했다。

『사모님하고 그 더럽고냄새나는 여자하고 겸상을요?』

식모애의 표정에 짙은 의혹이 서렸다。

『그 여자를 흉보지말아。아무도 그여자를 흉볼수없다』

수지는 조용히 타일렀다。

이윽고 한마리의 삼계탕을가운데 놓고 빈 그릇을 두개놓은 겸상이 들어왔다。오목이는 들어오지않고 식모하고실랑이하는 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오목이를위해 많은 국물과 살을 덜고、자기를위해서는 먹음나위없는 목줄기와 갈비뼈를 조금 덜었다。그리고 손수 오목이를 불러 들였다。

『사모님、이러시면… 이러시면 안됩니다요』

오목이가 울상을하고 손을 내저었다。

『너는 그전에 나를 언니라고 불렀지않니? 수지언니라고。앞으로도 그렇게 불러줘』

『저를 알아보셨군요? 이꼴이 됐는데도』

오목이가 고분고분 수지하고 겸상해서 마주앉았다。그리고 스스럼 없이 닭국물을 마시기 시작했다。그녀는 너무 소리내어 닭국물을 마셨으므로 마치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지는 오목이의 그릇에다 보오얀 닭국물과 부드러운 살과 살찐 인삼을 보탰다。자꾸자꾸 보탰다。그리고 속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다。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아마 유기사를 중동에 보내주는 일도 순조롭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그러면 오목이는 또 한 마리의 토종닭을 사례로 가져오지 모르고、오목이네 형편도 지금보다는 피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할수록 어려운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속일순 없었다。정말 어려운 일은 마음을 여는 일이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돼。수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자신에게 될수있는대로 준엄하려 들었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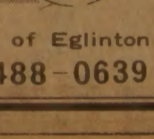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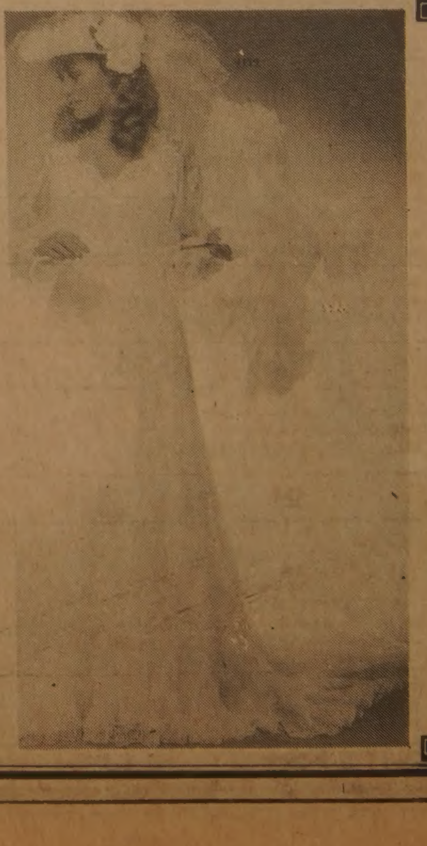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밤일할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밤12시-아침7시까지, 1주에 50시간.
전화 : 884-2747

도넛숍에서 파트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후7시~밤12시(일~금요일) Victoria Pk. & Steeles
전화 : 499-4459, 299-1431

풀타임 웨이트리스 구함.
아침 6시30분~2시까지
전화 : 251-1908, 466-4578(오후4시 이후)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그라나다 식당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923-3060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경험있는 헬퍼 구함.
Mississauga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가게 남자헬퍼 구함.
Full Time. 유경험자
전화 : 447-2116

가정일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2-1572

도넛츠가게에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861-1521, 222-3877

5년 경력있는 Auto body man구함.
좋은 보수와 좋은 컴미숀. 좋은 주위환경
깨끗하고 좋은 Shop.
37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Mr. Lam(람)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5세 여아) 전화 : 533-3545

혼자 독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더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음
연락처 : 463-0798

동반자 구함
약회사 메니저임. 독일태생. 캐나다에서 교육 받았음.
22세~35세 정도되는 여성으로써, 교육받고,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음. 친구나 결혼용의가 있는분.
전화 : 1-727-6490 (Gert) 콜렉트·콜로 걸어주기 바람.

구 직

베이비시터 원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전화 : 920-0930 Mrs.김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3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Bakery 매매 또는 동업자
구합니다.
전화 : 961-9780 오전10시~오후7시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전화 : 535-4441 Mr.김

빌딩 매매 또는 렌트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적당하고 좋은 위치. 좋은 가격.
982 Pape Ave. 전화 : 422-5029 Mik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리스 : 5년
전화 : 535-683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이상.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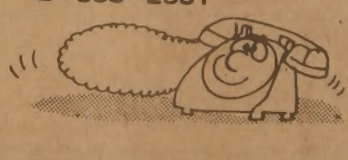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바,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체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켄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538-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